Entertainment p/18

성악가들의 뮤지컬 외출

metro

메트로 2015년 3월 3일 화요일 제3119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0

이대호 5번타자로 변신

회장님은 節稅 달인

명사의 집 ◆ 허창수 전경련회장, 이촌동 펜트하우스 p/5

노모한테 물려받으며 증여 대신 매매로 처리
최소 10억 아껴… "부자만이 가능한 세테크"

넴초프 망령에 푸틴 최대 위기 p/4

침체 빠진 車 내수 티볼리는 '고고씽' p/10

…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세요

야당 지도부와 인사하는 이병기 비서실장 이병기 청와대 신임 비서실장이 2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우윤근 원내대표와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패에 찌든 한국사회 김영란법이 시험중~

2012년 8월 입법예고된 김영란법은 당초 무산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꺼져가던 김영란법을 부활시켰다. 참사의 근본적 원인인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김영란법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진정한 세월호법은 김영란법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우리사회의 부패를 뿌리뽑을지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손에 달렸다는 평가다.

어이가 2월국회 통과를 약속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약속 시한이 3일로 끝난다. 2월국회의 마지막날인 이날은 원안이 처음 입법예고 됐던 2012년 8월부터 따지면 2년 6개월가량이 지난 시점이다.

우리사회 특유의 온정주의는 그동안 김영란법 통과의 장애물이 돼 왔다. 고질적인 부패문화를 뿌리뽑자 면서도 법의 엄격한 적용에 대한 두려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사회 대변혁에 대한 미지의 공포는 고비마다 김영란법의 발목을 잡았다. 결국 김영란법은 무산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이 같은 상황을 뒤집는 계기가 됐다. 참사의 근본적 원인인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김영란법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진정한 세월호법은 김영란법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한국사회가 김영란법에 적응할 수 있을지, 오히려 김영란법이 한국사회에 적응해 왜곡될지 입법 주체인 국회는 물론이고 한국사회 전체가 여전히 반신반의 상태다. 그만큼 김영란법의 파괴력이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한국사회 부패 관행에 철퇴

김영란법은 부패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규정이 특징이다.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등 재산적 이익과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와 향응은 물론이고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과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은 금품 제공으로 보고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100만원이하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김영란법의 진정한 파괴력은 처벌 대상자의 가족이 경제적 이익을 얻더라도 처벌된다는 점이다.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가족의 범위에 대해 법이 정한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 100만원이하라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연간 합계가 300만원을 넘어가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 국민 10명 중 4명이 대상

김영란법은 처벌 행위는 물론이고 적용 대상 역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관인보다 강화된 직무 취안은 국회·법원·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국공립학교에서 더 나아가 언론사,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대학병원 종사자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처럼 김영란법의 직접 적용을 받는 대상만 18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소 550만명에서 최대 1800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최대치로 따지면 국민 10명 중 4명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이들까지 포함하면 법 적용의 잠재적 대상이 더욱 확대된다. 우리사회의 거의 모든 구성원이 김영란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김영란법이 사회의 대변혁을 불러 올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 법 적용부터 새로운 문제 시작

대변혁에는 갖가지 시련이 따라붙는다. 시련을 넘지 못해 야기될 더 큰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은 김영란법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검사 출신의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일 심야까지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김영란법을 "공무원 복지부동 조장법"이나 "인간관계 파괴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경 공화국 조성법"이라는 비판에는 동조자가 즐비하다. 검찰이 자의적으로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 권 의원의 우려는 현실화될 거라는 관측이 많다.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검찰과 법원의 손에서 새로운 문제가 시작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참여연대 한 자원활동가가 2일 오후 국회 앞에서 김영란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정한 세월호법 성작무산 위기에서 세월호 참사로 부활

사회 대변혁 파괴력 법 통과돼도 '자의적 법 적용' 우려

새누리 공천갈등 결국 터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취임 이후 시한폭탄과 같았던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 간 공천 갈등이 결국 터졌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부실 당협위원장 교체 문제를 두고 비공개 회의 중에 친박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의 고함이 터져 나왔다.

교체 대상인 당협위원장은 ▲서울 동대문을 김형진 ▲부산 사하을 안준태 ▲인천 부평을 김연광 ▲경기 광명갑 정은숙 ▲경기 파주갑 박우천 ▲충북 청주 흥덕갑 최현호 ▲충남 공주 오정섭 ▲전남 장흥강진영암 선병진 등 8명으로 모두 친박계 지도부인 황우여 전 대표 시절 홍문종 당시 사무총장이 임명한 이들이다. 친박계는 비박 지도부의 본격적인 친박 물갈이 예고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서 최고위원은 격론 끝에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기자들과 만나서도 "나중에 여러분 앞에서 기자회견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협위원장은 공천과 직결되는 자리라 홍 전 사무총장 등 친박계는 당협위원장 선정 단계에서부터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당내에서는 결국 당권을 잃은 친박계와 비박 지도부 간 전면전이 발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송병형기자

"진보의 문제는 리더십 부재"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진보세력의 위기에 대한 자체 진단인 "기울어진 운동장론"에 대한 반박이 나와 주목된다.

새정치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2일 '새로운 대중의 출현과 진보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진보의 지지기반은 꾸준히 존재하고 있다"며 "진보 세력 위기의 핵심은 지지기반이 아니라 리더십의 부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중들이 전반적으로 보수적이어서 진보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201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과 '안철수 현상'이 주장의 근거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은 '혁신적 리더십'으로 이는 과거의 관행과 단절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책, 조직, 행동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했다. /윤정이기자 yoons1@

성범죄·총기난사 사건 '도긴 개긴' 당·정 정책

총기사고 대책 당정협의 결과

항목	내용
총기소지 허가 강화 방안	-총기소지 허가 규제를 [illegible] 총기를 [illegible] '총기소지' [illegible] 등 [illegible] 총기소지 [illegible]
총기실물 관리 강화 방안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및 위치 추적 [illegible] -총기 보관 장소를 현행 '경찰 경찰서' 외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illegible] -실탄은 수렵장 안에서만 구매 가능 [illegible] 실탄 [illegible] 판매 [illegible] -현행 [illegible] 5.5㎜ 이하 공기총의 [illegible]
총기사고 발생 위기대응능력 강화 방안	-총기사고 상황별 [illegible] 위기대응 [illegible] 일선 지구대 [illegible] 방탄복 지급
[illegible]	[illegible]

새누리당과 정부는 2일 잇따른 총기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핵심대책으로 총기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부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실효성이 의심되는 대책을 완용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총기에 GPS를 부착하는 방안은 총기를 들고 수렵지를 이탈하는 경우에 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위성을 통한 위치추적에 허점이 많다는 사실은 이미 성범죄자 위치추적장치제도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 전자발찌 관리 허점… 훼손하고 떼내도 속수무책

2008년 9월 시행된 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은 아동과 상습 성폭행범에게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발찌를 착용시키고 24시간 감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서울보호관찰소에 설치된 중앙관제센터에서 성범죄자가 만약 법원에서 선고한 출입금지지역에 접근하거나 발찌를 풀려고 할 경우 경고음이 울리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 제도는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는 취지로 시작됐으나 2008년 이후 추적 장치를 떼어 내거나 제대로 충전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215건에 이를 정도로 사실상 기술적인 면에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부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문제는 출고된 총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전무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총기가 대부분 수입품이라 GPS 삽입에 기술적 문제가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 민간 총기 16만여정… 관리인력·시설 확충해야

또 다른 문제는 행정적 관리다.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지난달 27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연수경찰서에서 경찰이 보관된 사냥용 총기류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기에 GPS 부착 추진안 '성범죄자 위치추적' 판박이

대부분 수입품인 총기에 GPS를 어렵게 달더라도 성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중앙관제센터와 같은 총기의 위치를 관리하는 시설이 필요하다.

현재 민간 소지가 허가된 총기는 16만 여정이다. 그 중 현재 개인이 보관 중인 구경 5.5㎜ 이하 공기총은 무려 6만정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정도 양의 총기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과 시설확충에 대한 고려 없는 단순한 제도 확립은 또 다른 문제점만 야기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박상융(변호사) 전 평택경찰서장은 "(총기 관리와 관련한) 법령을 개정해 규제를 강화하고 관리감독 부서와 수사 부서를 통합하는 한편 담당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도난분실 상태의 총기가 상당해 실효성 자체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관리시설과 인력은 확충하느라 뒷되게 국민의 혈세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나.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총기가 16만여정인데 이 중 4000여정이 도난·분실 상태"라며 "4000여정 이상이 돌아다니는 것을 소지자에게 그냥 내놓으라고 하면 처벌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총기난사는 일회성 범죄… 재발방지 대책은 아이러니

무엇보다 총기난사는 일회성 범죄라는 점에서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춘 대책은 '아이러니'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25일과 27일 각각 세종시와 화성시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범행 후 자살로 끝나는 일회성 범죄였다. 세종시에서 발생한 사건은 가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없음 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총기에 GPS를 달아도 그것을 마음만 먹으면 탈취해 쉽게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의 특성상 예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여러 대안들이 결국 근본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수렵기간을 두고 경찰관서에서 총기를 반출하고 영치하게 되는데 지역 권역별로 날짜를 특정해 그날에는 총기 반출하고 다시 저녁에 총기와 실탄 등을 회수하지 않으면 GPS를 달아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진권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에서 총기를 내어줄 때 사전 면담을 통해 수렵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등 반출 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총기 소지 허가 이후에도 주기적인 교육·심사 등을 통해 총기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illegible]기자 yoonai@metroseoul.co.kr

박 대통령 쿠웨이트 도착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후 현지시간 쿠웨이트 구사금 왕실터미널에 도착, 셰-이브라힘 [illegible] 국왕자문관 등 환영나온 인사들과 환담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미 국무차관 '과거사 발언' 성토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지난달 한중이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한다며 비판적 발언을 한 데 대해 여야가 강력한 비판을 쏟아 냈다.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셔먼 차관을 향해 "과거사를 덮자면서 3국 모두 책임이라는 양비양시론을 내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며 "미국이 피해자를 외면하는 입장을 견지하면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위상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미국이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며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미국이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갈등해결의 근본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셔먼 차관의 발언에 매우 유감"이라며 "미국이 동북아 안전과 질서 유지만 강조한 채 전략적 경제적 이익 극대화에만 치중해 이런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송병형기자 bhsong@

북한, 한미연합훈련 첫날 미사일 2발 발사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첫날인 2일 오전 6시 30~40분께 평양 남쪽 남포시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단거리 미사일은 사거리 490여㎞로 추정된다. 제원 고도, 속도를 추정해 봤을 때 스커드-C계열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훈련에 돌입하는 첫날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이번 훈련에 대한 '맞대응'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군 참모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내외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은 2일부터 모험적인 키 리졸브훈련, 독수리 합동훈련연습을 또 다시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며 "이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가장 노골적인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그 모든 곳에 단 한발의 도발 불씨라도 튕긴다면 그 즉시 맞받아 타격한다는 것이 우리 혁명무력의 흔들림없는 의지"이라고 주장했다.

훈련 기간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향후 추가적인 무력 시위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남북 간 경색 국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윤아기자

확 달라진 예비군훈련 2015년 첫 예비군훈련이 진행된 2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산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시가지전투를 벌이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M16 소총과을 사용해 전투의 발휘와 자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조별 상잔이 훈련과 함께 모든 과정 합격조부터 조기 퇴소하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 중이다. /뉴시스

영화의 한 장면? 강추위가 엄습한 미국 시카고 미시간호 주변이 얼어붙어 눈으로 뒤덮여 있는 가운데 1일(현지시간) 등대에도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려 괴이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위조 지폐 인쇄공 하루 일당 175만원

metro HongKong

위조지폐 사건으로 검거된 인쇄공의 하루 급여가 1만 위안(약 17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다.

메트로 홍콩은 중국 공안이 지난해 말 광둥성에서 2억2000만 위안(약 384억 원)에 달하는 위조지폐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로 체포된 위조사 제범들은 치밀하게 분업화된 조직으로 움직여 공안들을 놀라게 했다고 덧붙였다.

공안에 따르면 위조지폐의 반제품은 광둥 연해지역에서 생산된다. 반제품은 후난성의 산간지역으로 운송돼 가공을 거친 후 쓰촨성 충칭 등 지역에서 판매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100 위안(약 1만7000원) 짜리 위조지폐는 장당 6 위안에 도매로 팔리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위조지폐 인쇄공들의 월급이다. 평균 25만 위안(약 4300만원)의 월급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위조지폐 범죄에 발을 들여놓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설명이다.

메트로 홍콩은 "재료를 구입하는 것부터 판매까지 인터넷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위조지폐 범죄가 계속해 비싸 점점 자주 발생하고 적발하기도 어려워졌다"며 "최근에는 소액 위조지폐 유통도 다량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리=이국명기자

그리스 구제금융 또 미궁속으로

독일 재무 "약속 안 지키면 돈 없어" 스페인·포르투갈도 유럽연합에 항의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현금 보유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그리스 최대 채권국 독일은 구제금융 조건을 내걸었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그리스 총리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유럽연합(EU)에 항의했다.

1일(현지시간) 유로그룹 의장과 독일 재무장관은 그리스를 향해 구제금융을 받으려면 개혁을 서두르라고 경고했다. 앞서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지난달 24일 그리스 구제금융을 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의 예룬 데이셀블룸 의장은 "그리스가 긴급 자금을 수혈받으려면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경제개혁 일부라도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발언은 그리스 정부 재정이 조만간 바닥나 정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 그리스 구제금융 당국은 이르면 2주 사이 그리스 정부의 현금이 고갈돼 이번달에 갚아야 할 43억 유로를 조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그리스의 최대 채권국인 독일도 그리스의 재정 상태를 문제삼았다.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1일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그리스가 구제금융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구제금융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리스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결국은 의무를 다할 것"이라면서도 요구 조건을 이행해야 추가 지원이 가능함을 재확인했다.

◆ 그리스 총리 분통 터트려

한편 그리스의 구제금융 연장 잡음은 인근 국가들과의 갈등을 낳았다. 지난달 28일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반 그리스 축'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들 국가가 그리스 정부를 전복하려 한다는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이다.

당시 치프라스 총리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자국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그리스 구제금융 연장) 협상 전반을 좌절시키려 했다"면서 "선거를 앞둔 스페인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그리스 정부를 약화시켜 조건 없는 항복을 받아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열린 그리스 총선에서 시리자가 당선된 이후 유럽에서 반긴축 정당의 인기가 커졌는데, 스페인과 포르투갈 정부가 이를 견제하고자 구제금융 연장 협상이 그리스에 불리하도록 힘을 썼다는 것이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정부는 치프라스 총리의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며 유럽연합(EU)에 공식적으로 항의 성명을 전달했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그리스 문제의 책임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아닌 좌파 세력에 있다. 치프라스 총리는 그리스 부채 문제에 대해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윤은혜기자 unique@metroseoul.co.kr

미국산 인삼 아시나요

진정효과 탁월 중국서 인기

미국산 인삼이 중국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맛과 향이 강한 데다가 열을 낮추는 진정 효과가 탁월하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미국의 지난해 인삼 수출액이 중국·홍콩에서 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2790만 달러(약 851억 원)로 집계됐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인삼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한국의 30분의 1 정도에 불과하지만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 가까이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미국 인삼의 95% 이상은 위스콘신 주를 중심으로 북중부 지역에서 재배된다. 이 지역은 청정한 농지가 드넓게 펼쳐진 데다 여름철에도 비교적 서늘하다. 중국인이 중시하는 '풍수'의 최적지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유효성분도 아시아산 인삼 못지않을 정도로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중국인 관광객은 물론 현지 유학생들도 선물용으로 인삼을 구입하려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뿌리가 두껍고 흠이 없는 미국산 인삼은 수백 달러를 호가할 정도다. 다른 어떤 농작물보다 단가 면에서 최고지다. 미국 내 한 인삼 판매점에서는 1파운드(0.45kg)당 9000 달러(약 990만 원)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위스콘신 인삼 상표를 도용한 짝퉁 인삼이 버젓이 시장에 팔리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LAT는 전했다.

/이국명기자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 인근에서 1일(현지시간) 수많은 시민들이 피살된 야권지도자 보리스 넴초프 전 부총리를 추모하는 행사를 열고 있다. /AP 연합뉴스

'넴초프 사태' 푸틴 리더십 흔들리나

5만여 시위대 현 정부 비난 … 3일 장례식 추모 열기 최고조

넴초프 추모 열기에 푸틴 대통령이 정치 생명 최대 위기를 맞았다. 푸틴 정권의 넴초프 피살 책임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례적으로 열리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수도 모스크바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지난달 27일 피살된 저명 야권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55) 전 부총리를 추모하는 거리 행진 행사가 열렸다.

모스크바에서만 5만명 이상의 시민이 넴초프의 사진을 들고 나와 현 정권의 살해 책임을 비난했다.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넴초프가 주지사로 근무했던 중부 도시 니즈니노브고로드 등에서도 대규모 추모 집회가 열렸다. 시위대는 "푸틴 없는 러시아", "잊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총탄은 우리 모두를 향한 것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위에 참가한 여배우 리다 네그룹은 "넴초프 살해 배후는 푸틴이 있는 크렘린"이라며 "푸틴 대통령이 직접 살해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아첨하려는 측근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모 열기는 3일 예정된 넴초프 장례식 때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다만 푸틴의 지지 여론이 워낙 탄탄하고 감시가 삼엄해 본격적인 반(反)푸틴 시위로 비화될 지는 미지수다. 야권의 분열 상황도 난제로 작용한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넴초프 전 부총리의 어머니에게 전보를 보내 "범인을 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 당국은 용의자 현상 수배에 나섰으며, 총격 당시 넴초프 전 부총리와 동행한 모델 겸 배우 안나 두리츠카야(24)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윤은혜기자 unique@

<선경련 회장>

허창수, 펜트하우스 절세 '꼼수'

35억 모친 아파트, 증여 아닌 매매로 취득… 10억원 아껴

부자들만이 할 수 있는 꼼수 절세 방법이 있다. 거액의 부동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때 상속이나 증여 대신 매매로 처리하는 것이다. 매수자인 자식이 소득증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돈이 있으면 최고세율이 50%에 이르는 증여 방법을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다. 매도자인 부모가 양도차익분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만 내면 된다.

세무당국은 부모와 자식 간 부동산 매매의 경우 통상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물리지만, 매수자 측이 풍부한 자금동원력으로 입증하며 매매라고 주장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양도소득세만 매길 수밖에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 자리를 세번째 연임 중인 허창수 GS그룹 회장도 이런 세테크에 능통한 것으로 보인다.

2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허 회장은 전경련 회장 취임 이듬해인 지난 2012년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 최고층 펜트하우스를 어머니인 구위숙씨한테서 사 보유하고 있다. 아파트 구입대금은 35억2500만원이었다. 증여로 취득했을 때보다 최소한 11억원 정도의 절세효과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허 회장의 어머니 구 씨는 2003년 4월 이 아파트를 샀다. 당시 구 씨는 아들 허 회장 소유의 성북구 성북동 고급주택에 거주 중이었다. 이후 2003년 11월 허 회장은 어머니가 구매한 아파트로 주소를 변경했다. 변경 전 허 회장의 주소는 서초구 서초동 고급빌라였다.

허 회장은 이 아파트를 증여나 상속이 아닌 매매를 통해 취득했다. 세무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허 회장이 만일 증여로 아파트를 물려 받았다면 약 13억여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다. 당시 이 아파트에 설정돼 있던 채권최고액 6억5000만원의 근저당을 감안한 액수다.

마원렌 세무사는 "매도인 측 구 씨가 1주택자라고 가정하면 당시 부과받은 양도소득세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상당일 것이다. 2003년 최초 취득가액에 따라서는 양도세가 7000만~8000만원 정도밖에 안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허 회장이 어머니 구 씨에게 양도세 만큼의 금액을 되돌려 줬을 것을 가정하면 허 회장 입장에선 10억원이 넘는 세금을 아낄 수 있었다. 구 씨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펜트하우스 아파트를 자식에게 물려주게 된 셈이다.

마 세무사는 "가족간 매매는 세무서와 국세청에서 실제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엄격히 조사하고 따진다"며 "2012년 당시 3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가족 간에 매매 거래를 했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모든 정도로 이해해야 할"이라고 말했다.

/김학철기자 kimc1104@metroseoul.co.kr

서울시 용산구 LG한강자이아파트 전경.

부산은행·경남은행 상호 통장정리 가능

BS금융지주는 2일 이용 고객의 편의 향상을 위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어디서든 상호 통장 정리가 가능토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양 은행 고객은 은행 창구나 통장정리기, 자동화기기를 통해 상호간 자유롭게 통장정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통장정리업무가 가능한 예금은 MMDA(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를 포함한 보통예금과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또한 창구에서만 가능했던 뱅크라인 통장도 ATM(자동화기기)을 통해서 상호 통장정리할 수 있다.

BS금융 관계자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고객은 지난 1월에 이미 시행한 양은행간 각종수수료의 동일은행 기준 적용이후 2개월 만에 상호간 통장정리도 가능해지면서 금융거래 편의성이 한층 높아지게 됐다"며 "앞으로 양 은행은 공동상품도 출시해 한층 폭넓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BS금융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지주사명을 BNK금융지주로 변경하는 정관 변경 안건도 의결했다.

새 지주 사명은 오는 27일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4월경 새로운 기업이미지(CI) 디자인을 확정하여 CI 선포식도 개최할 계획이다. 기존 BS를 사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열사들은 사명을 BNK로 변경할 예정이며,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별도의 사명 변경 없이 CI만 변경될 예정이다. /이국한기자

LIG손보, 대한적십자사에 1억원 전달 LIG손해보험은 2일 서울 남산동 소재 대한적십자사에 총 1억원의 성금을 기부했다. 이 기부금은 취약계층 아동 지원과 재난 구조사업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김병헌(오른쪽) LIG손보 사장과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공식기금 전달식 후에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LIG손해보험 제공

국내은행 1월 가계대출 4000억 증가

연체율 0.71% 달해

은행권의 가계 대출이 한달새 4000억원 늘어나며 증가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년 1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1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채권 잔액은 1264조3000억원으로 지난달 보다 8조7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은 518조6000억원으로 한달새 4000억원 확대됐다.

지난 12월의 5조5000억원 증가에 비하면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1월이 전통적인 이사 비수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증가세다.

최근 5년간 1월 중 주택대출 증감 현황을 보면 2010년 -1조원, 2011년 3000억원,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3조4000억원, 2014년 -2조6000억원 등으로 모두 감소세였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1조6000억원이 늘어 잔고는 36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대출은 187조3000억원으로 1월 중 4조원 커졌으며 중소기업 대출은 526조8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 확대됐다.

연체율은 전년동월 대비 하락하는 등 개선추세를 지속했다.

지난 1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71%로 전월 0.64%보다 0.07%p 상승했다. 다만 작년 같은 기간 0.88%와 비교해서는 0.17%p 하락했다.

이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설중 신규 연체발생액 1조7000억원이 연체채권 정리규모인 7000억원을 상회한데 따른 것이다.

기업대출 연체율의 경우 0.86%로 지난달보다 0.09%p 올랐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원화) 연체율은 0.53%로 전월말보다 0.04%p 상승했으며 주택담보대출(원화) 연체율은 0.43%로 0.02%p 늘었다. /박지은기자 alive1203@

market index <2일>

코스피	코스닥
1996.81 (+11.01)	621.81 (-2.75)
금리	환율
2.10 (-0.03)	1100.90 (+1.20)

국내 최대 1500억원 규모 기술가치 투자펀드 조성

우리은행은 2일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1500억원 규모의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펀드는 주 투자자(anchor investor)인 우리은행이 300억원, 펀드운용사인 한국투자파트너스가 100억원 규모로 우선유 참여한다.

현재 한국투자증권도 200억원 규모로 참여를 결정해 총 600억원이 모집 완료된 상태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성장사다리펀드와 기타 투자자에게 세안해 연내에 국내 최대 규모인 총 1500억원의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조성된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는 외부 기술평가기관(TCB)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지만 재원과 경험부족 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에 지분형태로 자금을 지원한다.

또 경영컨설팅도 제공해 기업 성장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투자된 펀드는 향후 기업이 성장한 후 지분매각이나 기업상장 등의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키로 했다.

김옥구 우리은행 IB사업단 상무는 "그간 여신에만 편중된 기술금융 지원을 투자 분야까지 다변화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 중견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기술개발 활성화와 기술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은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9-1551
발행인 겸 편집인 남궁호
사장 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김세준
광고문의 (02)721-9851 3
독자센터 (02)721-9801

보험협회, 회장님 위한 과도한 '전관예우'

기자 수첩
김 청 석 <경제부 기자>

손해·생명보험협회 등 금융 협회가 지난해 세월호 사건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막기 위한 대책을 속속 내놨다.

당국의 '낙하산' 인사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최근 수장 선임에서 표면화됐다.

손해·생명협회도 10여년 만에 '관(官)' 출신이 아닌 민간출신 회장이 탄생했다.

손보협회는 지난해 8월 민간 출신인 장남식 전 LIG손해보험 사장을 선임했다. 생보협회 회장도 지난해 12월 이수창 전 삼성생명 사장을 뽑았다.

이어 이들 단체는 그간 금융감독원 등 당국 낙하산 관리가 앉았던 부회장직도 폐지하기로 했다. 생보협회는 여기에 퇴임 회장에 대한 '전별금' 지급 규정은 없앴다. 이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투명한 회장 선출을 위한 것으로 보험권의 신뢰에 기대감을 심어줬다.

하지만 이들 기관의 전 단체장에 대한 '전관예우'는 이어 속가지 않는 듯 하다.

손해·생명협회는 전 회장에게 명문화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공예으로 퇴직금 외 수억원의 '공로금'을 지불해온 것이 드러난 것.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생보협회장을 지낸 이우철 전 회장은 퇴직금과 별도로 업계로부터 3억5000여만원의 '전별금'을 받았다. 2005~2008년 협회장은 지낸 남궁훈 전 회장도 임기 이후 2억2000여만원을 받았다.

생보협회는 전별금 규정 이후인 지난해 12월에도 퇴임한 김규복 전 회장에게도 3억원가량을 지급했다. 김 전 회장의 연봉이 3억여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 금액은 공식적인 퇴직금(7500만원~8000만원)의 3~5배에 달한다.

생보협회가 전별금 규정 변경에도 퇴직금이 줄지 않은 이유는 기관 운영비를 부담하는 회원사들의 결정에 따라 공로가 있는 기관장 등에게 추가로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꼼수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손보협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상용 전 회장(2007~2010년)과 문재우 전 회장(2010~2013년)도 퇴직금 외 2억~3억원을 별도로 챙겼다. 보험개발원 역시 전 원장에게 퇴임 후 2억원대 전별금을 지급했다.

따라서 세인들에겐 '전별금'이나 '전관예우 공로금'이 하등 다를바 없다'는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이들 단체들은 '전관예우'가 업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무색하게 하진 않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삼성화재 업계 1위 '수성'

1월 호실적… 경쟁사 주춤한 사이 당기순익 전년 대비 50% 증가

삼성화재가 연초부터 축포를 터트리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실적부진을 씻고 지난 1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큰폭으로 증가한 것.

2일 손보업계와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화재의 지난 1월 영업이익은 1269억57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7% 증가했다. 이 기간 당기순익은 50.1% 늘어난 914억6300만원을 기록했다.

원수보험료(매출액)도 1조6045억3400만원을 기록, 지난해 1월보다 2.6% 증가했다.

투자영업이익은 16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8% 상승했고 투자이익률도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4%를 웃돌았다.

특히 당기순익과 영업이익은 삼성화재의 올해 목표치의 11%에 달했다. 앞서 삼성화재는 올해 올해 당기순이익 8500억원, 매출액 16조8100억원, 영업이익 1조16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화재의 실적 호조는 손보업계 '빅3'인 현대해상과 동부화재와 비교해도 독보적이다.

이 기간 현대해상의 영업익과 당기순익은 각각 311억2000만원, 205억28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0.7% 증가에 그쳤다.

동부화재의 영업익과 당기순익은 각각 419억6700만원과 290억57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4.8%, 8.5% 하락했다.

여기에 올해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에서도 독보적 지위를 누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시장점유율 21.5%로 온라인 자보시장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미 현대해상이 지난해 말 온라인자보 자회사인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이하 하이카)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해 공격적인 마케팅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현대해상은 오는 7월까지 흡수합병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삼성화재에 1위를 뺏긴 동부화재도 자보 점유율을 크게 늘이기 위한 전략을 포기했다.

김영만 동부화재 부사장은 지난달 25일 2014 경영실적 EV 및 2015 경영전망 IR 설명회에서 "올해 삼성화재와 온라인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경쟁할 생각은 없다"며 "손해율을 개선해 수익성 향상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올해는 온라인 자보시장에서 선두를 탈환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월 화재할증 등으로 일반보험 손해율이 높았던 점이 올해 실적 호조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면서도 "올해 온라인 자보시장 선점과 해외사업장에서의 실적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봄편 공개 교보생명은 2일 봄을 맞아 서울 광화문 사옥에 게시하는 '광화문글판' 봄편을 공개했다. 이번 봄편은 시인 함민복의 '마흔 번째 봄' 시에서 발췌했다. 이 시는 봄산이 꽃 피기 전에는 설렘을, 활짝 꽃이 핀 후에는 기쁨을 주듯 누군가의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 글판은 오는 5월 말까지 광화문 교보생명 빌딩과 강남 교보타워에 걸린다. /교보생명 제공

창립4주년 KB국민카드,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봉사

KB국민카드는 2일 창립 4주년을 맞아 독거 노인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과 본사 임직원 50여명은 서울 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서 복지관 외벽 벽화 그리기와 복지관 방문 어르신을 위한 간식 지원 등의 활동을 했다.

또 은평구 내 독거 노인 가구 5곳을 방문해 도배와 장판 교체, 봄맞이 대청소 등 주거 환경 개선 활동을 했다. 아울러 쌀과 휴지, 청소용품 등 독거 노인을 위한 생활 용품도 제공됐다.

이와 함께 전국 25개 영업점에 근무하는 150여명의 직원들은 각 지역 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 영업점 인근 독거 노인 가구 100여 곳에서 주거 환경 개선 활동을 실시했다.

이밖에 KB국민카드는 독거 노인들의 생활 안정과 지원 사업을 위한 기부금 9400만원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전달했다.

한편 이날 KB국민카드는 서울 종로구 KB국민카드 본사에서 창립 4주년 기념식도 가졌다.

김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고객이 바로 KB국민카드의 존재 이유"라며 "고객 중심 사고를 바탕으로 고객을 위해 한 차원 높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배이슬기자 a.vell2@

김덕수 오른쪽 KB국민카드 사장이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 주거 환경 개선 봉사 활동 후 손자 레인지를 설치해 주고 있다. /KB국민카드 제공

김용복 신임 농협생명 대표 "자산 운용능력 확충 노력"

NH농협생명은 김용복(사진) 신임 대표가 2일 서울 미근동 소재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서 김 대표는 올해 경영 목표로 '금융환경 변화에 대비한 장기적 성장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보장성 보험 중심의 상품 포트폴리오 강화 ▲상품 손익관리 체계 강화 ▲자산운용 역량 및 체계 업그레이드 ▲제2의 생산성 향상을 꼽았다.

또 협동조합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금융서비스 제공과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보험업무 전반의 양적·질적 개선도 주문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김 대표는 "협동조합 기반의 생명보험사라는 정체성을 확고히해야 한다"며 "농축협 재원을 기반으로 신재원 육성에 역량을 쌓기바라고 공융지주사 차원의 자산 운용능력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이사는 지난 1982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전남지역본부장, 개인·기업고객본부장, 여신심사본부장을 지냈다. 이후 농협은행 수석부행장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는 우리아비바생명(현 DGB생명)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김형석기자

처음
그 부드러운
느낌처럼
HAPPY WATER
부드러운 소주
처음처럼
부드러운
17.5도

주총 앞둔 증권사 CEO, 누가 남을까?

불황에도 실적 선방… 대부분 유임에 '무게'

3월 증권사 정기주총을 앞두고 상반기 임기가 만료되는 최고경영자(CEO)들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대다수의 증권사 CEO들이 연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해 업황 불황에도 증권사들이 양호한 실적을 올렸다"면서 "이 때문에 CEO 대부분이 자리를 지킬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고 전했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 가운데 올 상반기 CEO 임기가 끝나는 곳은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대투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키움증권 등 6곳이다. 강대석 신한금융투자 사장을 포함해 변재상 미래에셋증권 사장(3월 13일)과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3월 20일),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3월 31일), 장승철 하나대투증권 사장(3월 31일)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우선 오는 20일 임기가 끝나는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올해도 연임이 무난할 전망이다. 유 사장은 지난 2007년부터 한국투자증권을 이끌어 온 증권업계 최장수 CEO다. 이번에도 재신임을 받는다면 8번째 연임에 성공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유 사장의 연임이 올해도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사장은 2007년 47세의 나이로 최연소 증권사 CEO가 된 이후 그동안 회사를 잘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2300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전년 대비 180%의 성장률을 이끌어냈다. 또 엇따른 구조조정에도 인력감축을 실시하지 않았다.

장승철 하나대투증권 사장도 계속해서 CEO를 맡게 될 전망이다. 긍정적인 실적을 발판으로 임기를 연장할 것으로 업계에선 관측하고 있다.

강대석 신한금융투자 사장도 연임이 유력할 전망이다. 강 사장은 2014년 2월 역대 신한금융지주 자회사 대표 가운데 처음 연임에 성공했다. 강 사장은 2012년 취임한 이후 꾸준한 경영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이달 중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를 열고 사장 선임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권용원 키움증권 사장(5월 24일 만료) 역시 연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취임 후부터 회사를 큰 무리 없이 이끌어 왔으며, 실적은 물론 신사업 추진을 앞둔 점을 감안할 때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김보배기자 metroseoul.co.kr

거래소 "결산 관련 상장폐지 비중 늘어"

국내 증시의 상장폐지 기업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결산 관련 상장폐지 비중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폐지 기업 수는 24개사로 전년 47개사보다 48.9% 감소했다.

상장폐지 기업수는 2010년 94사, 2011년 71사, 2012년 65사, 2013년 47사, 2014년 24사로 꾸준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가운데 감사의견 비적정, 자본잠식 등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전년(22개사)보다 40.9% 줄어든 13개사였다.

2010년 43개사에서 2011년 36사, 2012년 28사, 2013년 22사, 2014년 13사로 지속 감소세를 보였다.

전체 상장폐지 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의 비중은 2010년 45.7%에서 지난해 54.2%로 점차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10~2014년) 결산 관련 상장폐지의 주요 사유로는 '의견거절' 등 감사의견 비적정이 59.2%로 가장 많았다.

자본잠식(28.9%), 사업보고서 미제출(7.7%), 매출액 미달 등 기타(4.2%)가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정기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유가증권시장이 32개사, 코스닥시장이 110개사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감사의견 비적정은 즉시 상장폐지 사유이므로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보고서 미제출기업 공표 및 미제출사유 공시를 유도하는 등 투자자보호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들도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상장법인의 주주총회일 및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을 사전 확인하여 감사보고서의 기한내 제출 여부와 미제출시 그 사유 등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보라기자

'DIY 원목 나무조명등 만들기' 사회공헌 활동 진행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28일 여의도 한화투자증권 본사에서 임직원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회사 임직원과 가족 60여명은 'DIY 원목 나무조명등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DIY 원목 나무조명등'은 드릴과 나무재료 등을 활용하여 나무에 구멍을 뚫고 전구소켓과 스위치를 결합한 뒤 마감재를 바르고 한지를 이용한 장식물을 붙이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제작된 조명등은 영등포교육복지센터에 전달될 예정이다.

영등포교육복지센터는 영등포구 내 학생들에게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복지기관으로,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과 영등포구가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정의 경제적 결핍으로 인해 복합적 위기에 처한 구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 향상과 정서적 안정 지원, 가족의 역량 강화, 학생 개개인의 성장 지원 등의 활동을 편다. 더 나아가 지원대상 학생들과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연계시킨 교육복지 협력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석희 한화투자증권 인사지원팀 팀장은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는 물론 봉사자들에게도 '나눔의 기쁨'을 전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가족의 참여를 통해 가족 간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나눔의 긍정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을 회사생활의 일부로 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기자

연 4.0% 특판RP 예약 판매

3개월 만기 최대 3천만원까지 가입

매주 50억원 한도 월요일부터 예약

동부증권, 연 4.0% 특판RP 예약 판매 동부증권은 연 4.0% 금리를 제공하는 3개월 만기 특판RP 상품을 예약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동부증권 제공

갤럭시S6 출시… 부품 수혜주는?

삼성전자가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를 선보인 가운데 부품 관련주들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1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15(Mobile World Congress)에서 최고 전략 제품인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 공개 행사를 진행했다.

갤럭시S6와 S6엣지가 실용성과 디자인 모두를 충족시켰다는 세간의 호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품 관련주들의 전망에 관심이 쏠렸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갤럭시S6 부품주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은정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새롭게 변신한 갤럭시S6의 전반적인 디자인과 사양이 아이폰6와 유사하면서도 기능 사양 측면에서는 월등히 뛰어나 가격 경쟁력만 갖추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판매량을 보일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부품 관련주 역시 전망이 밝다"고 밝혔다.

갤럭시S6의 가장 큰 변화는 메탈 디자인으로 귀환다. 이에 메탈 외장재 업체인 KH바텍과 유원컴텍 등이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

하준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갤럭시6는 시리즈 중 최초로 금속테두리를 채택했으며 강화유리재 뒷면과 금속테두리의 조화가 포인트"라며 "큰 폭의 상승 후 조정 국면에 있던 KH바텍, 유원컴텍, 인탑스, 동양강철 등의 종목들에 상승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메라 부품주의 강세도 예상된다. 갤럭시S6에 장착된 카메라가 전·후면 각각 500만과 1600만 화소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카메라 모듈 관련주인 파트론과 캠시스와 해성옵틱스가 주목받고 있다.

송 연구원은 "파트론과 해성옵틱스의 경우 전면 카메라 화소수가 증가하고 메인 카메라 렌즈값의 상승 등 카메라 모듈의 성능 진화가 계속되고 있어 갤럭시S6 판매량 증가에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갤럭시S6의 OLED와 무선 충전 기능 관련주도 전망이 밝다. 관련주로는 이오테크닉스, 일에프텍 등이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갤럭시S6 부품주의 수혜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했다.

어가근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전자부품주의 갤럭시S6 출시를 통한 주가 상승이 2분기까지 지속될 전망"이라며 "전반적인 모델 수 감소와 보급형 스마트폰 플랫폼 통합으로 생산능력이 크고 판가인하에 대한 대응력이 높은 아이템별 선두권 업체인 삼성전기, 파트론, KH바텍, 코리아써키트, 인터플렉스 등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보았다.

/이보라기자 sophia@

'갤S6' 디자인·삼성페이 찬사 쏟아졌지만

일체형 배터리·메모리 걸림돌 전망

삼성전자의 '갤럭시S6'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삼성전자는 2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컨벤션센터에서 '갤럭시 언팩 2015' 행사를 열고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를 공개했다. 갤럭시S6는 지난해 스마트폰 시장에서 부진한 성적을 낸 삼성전자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 중요한 전략 스마트폰이라는 점에서 출시 전부터 다양한 루머가 쏟아지는 등 관심을 한몸에 받고있다. 2일 신종균 삼성전자 IM부문 사장이 갤럭시S6를 소개하며 "글로벌 모바일 업계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스마트폰"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발표 중 수차례 리뉴(renew)와 올 뉴(all new)를 외쳤다.

◆ 디자인·삼성페이 호평

갤럭시S6의 혁신적인 부분은 디자인과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삼성페이'다. 삼성전자가 갤럭시S3 이후 출시한 제품의 변화된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 딱히 신제품이라는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갤럭시S6는 메탈 소재를 채택해 글래스와 완벽한 조화를 이뤄내며 변화를 담아냈다. 나노 크기의 코팅을 수차례 입히는 가공 기법을 통해 갤럭시S6만의 새로운 컬러를 구현해 진주, 사파이어, 골드 토파즈, 에메랄드 등 보석과 같은 오묘하고 깊이 있는 색상을 보여준다.

특히 갤럭시S6는 곡선을 많이 적용해 갤럭시 분위기를 충실히 담아냈다. 신종균 사장이 강조한 "가장 아름답고 진보된 스마트폰"이라는 이미지도 담겨 있다.

또 삼성전자가 처음 선보인 '삼성페이' 서비스에 대한 업계 반응은 뜨겁다. 현재 모바일 결제 시스템은 각광받는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삼성페이는 기술적으로 NFC와 마그네틱 보안전송, 바코드 등 여러 가지 결제 방법을 갖고 있다. 특히 마그네틱 보안전송은 얼마 전 삼성전자가 인수를 발표한 루프페이의 핵심 기술이다. 또 별도 리더기 없이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 일체형 걸림돌

갤럭시S6는 삼성전자가 출시한 스마트폰 가운데 최초로 일체형 배터리를 적용한 제품이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갤럭시 시리즈와 아이폰의 차별화로 배터리 교체와 메모리 확장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갤럭시S6는 기존 갤럭시 장점을 버렸다.

삼성전자가 2009년 애플 아이폰 3GS와 시장 경쟁을 펼치면서 삼성 '옴니아2'의 장점으로 메모리 확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다 갤럭시 S6의 디자인을 고려하면서 이번 작품에는 일체형 배터리와 내장 메모리를 채용했다. 예들은 따라간 셈이됐다.

물론 삼성전자가 이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2009년 당시 배터리와 메모리 기술의 성장을 고려하면 설명 가능하다.

갤럭시S6의 배터리 사용량은 비슷하지만 충전 기술로 문제를 해결했다. 갤럭시S6는 10분 충전으로 4시간을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급속충전으로 배터리 수명이 짧아질 수 있지만 충전 속도에 개선이 있는 것은 확실시 되고 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LG전자 모델들이 LG전자 전시 부스 내 전시된 아우디 자동차 앞에서 LG 워치 어베인 LTE로 자동차를 제어하는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LG전자 제공

자동차 열쇠 없이도 시동 온·오프 가능

LG전자, 스마트워치로 '아우디' 제어 시연

LG전자는 2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하는 'MWC 2015'에서 LTE 통신 모듈을 탑재한 스마트워치 'LG 워치 어베인 LTE'로 '아우디(Audi)' 자동차를 제어하는 기술을 시연한다고 밝혔다.

사용자는 자동차 열쇠 없이도 LG 워치 어베인 LTE를 착용하고 운전석에 탑승해 '스타트 엔진' 버튼만 누르면 아우디 자동차의 시동을 온·오프할 수 있다. 또 내장된 NFC(근거리무선통신) 칩셋과 자동차가 서로 연동하는 원리를 통해 착용한 스마트워치를 운전석 도어 손잡이 근처에 대기만 해도 도어를 열거나 잠그는 것도 가능하다. LG전자는 해당 스마트워치만 자동차 시동을 걸고 문을 열 수 있도록 SIM카드 기반 보안 솔루션을 적용해 강한 보안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LG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시연되진 않지만 가까운 미래에 구현될 스마트워치와 자동차 간 연동 시나리오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연동 시나리오는 ▲탑승 전에 원거리에서 스마트워치로 자동차 좌석의 히터를 예열할 수 있는 기능 ▲자동차가 어디에 주차됐는지 잊었을 때 스마트워치와 자동차 사이의 거리와 방향을 알려주는 기능 ▲스마트워치가 운전자의 심박수를 측정하고 자동차에 전달해 안전 운전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 등이다.

/정혁수기자 hjlung0404@

동부대우전자 이재국 경영지원실장 사장 승진

동부대우전자(대표 최진균 부회장)는 2일 이재국 경영지원실장을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재국 사장은 안동고등학교,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삼성전자에서 지원그룹 그룹장, 북미경영지원팀 상무, 생활가전사업부 경영지원 총괄 전무 등을 거쳤다. 이후 생활가전전문업체인 ㈜리홈과 종합물류회사인 CJ GLS㈜에서 대표이사를 역임한 후 2013년 2월 동부대우전자 출범 당시 경영지원실장(부사장)으로 부임했다.

동부대우전자는 "이번 승진 인사는 글로벌시장의 장기불황과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구조 혁신에 앞장서 동부대우전자가 '고품질 신용가전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성운기자

'갤S6'로 애플 뛰어넘을 수익성 창출할까

하드웨어 경쟁력 확보로 원가 상승

삼성전자가 지난해 부진했던 스마트폰 실적을 뒤집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의 호평이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있다. 다만 하드웨어는 진전된 반면 값은 전작과 비슷하게 책정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갤럭시 S6'와 '갤럭시S6 엣지'를 공개한 후 국내 증권사들은 갤럭시S6 판매량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갤럭시S6 출하량 전망치를 5100만 대로 기존 4600만 대보다 11% 높려잡았으며 하이투자증권도 42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기존 시장의 전망치였던 3000만 대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갤럭시 S6가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경쟁사 제품보다 뛰어난 기능으로 업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출하량 증가가 삼성전자 IM부문의 수익성까지 창출할지는 지켜봐야할 문제다. 부품 원가를 최적화 하는 데 집중한 전작과는 달리 이번 갤럭시 S6에서는 하드웨어 측면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면서 원가가 크게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반면 제품 가격은 전작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IM부문의 영업이익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스마트폰 시장은 업체간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면서 평균판매단가가 하락하고 부품 등 원가와 마케팅 비용은 상승하면서 실질적인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로 변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경쟁사인 애플이 지난해 4분기 아이폰의 판매 호조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전체에서 얻은 영업이익 중 93%를 독식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마진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병기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해 삼성전자의 IM사업부 매출액은 전년대비 3% 늘어난 115조5000억원으로,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33% 감소한 +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혜용 NH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부품원가 측면에서 부담 요인이 존재함에 따라 삼성전자 휴대폰 부문의 이익 측면에서는 출하량만큼의 상향 조정은 어려울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갤럭시S6의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로 시스템LSI 사업부의 '엑시노스 7420'가 채택되는 등 반도체 분야의 호실적이 기대돼 삼성전자 전사의 영업이익은 다소 성장할 전망이다.

/정혁수기자

한화케미칼, 석유화학 승기 잡을까?

단기적 시너지는 제한적…1분기 유화 실적 축소 전망

"삼성 계열사 인수가 완료되면 한화그룹의 석유화학부문은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1위, 글로벌 10위권에 랭크될 것"

김창범 한화케미칼 사장의 이 같은 목표가 현실화될까?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화케미칼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8조553억 원, 영업이익 1412억 원을 거뒀다. 전년 대비 각각 2.4%, 44.3% 증가했다. 특히 매출은 회사 설립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화케미칼의 캐시카우인 석유화학 분야 실적은 저조했다. 작년 4분기 석유화학 분야는 영업손실 137억원을 기록했다. 한화케미칼의 석유화학 부문의 적자기록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이지연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폴리실리콘 가동률 정상화에 따른 영업 적자 축소에도 유가 하락에 따른 화학제품(PE/PVC) 스프레드 감소와 지난해 10월 인수한 한화화인케미칼의 부진한 실적이 연결 실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삼성화학계열사와의 합병으로도 옮겨까지 불린 한화케미칼의 석화분야 고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가 인수한 삼성 화학계열사들의 실적은 하향세다.

삼성종합화학은 2013년 576억 원 영업적자를 냈다. 삼성토탈의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1724억 원으로 2013년 같은 기간에 비해 61.3% 감소했다.

백영찬 현대증권 연구원은 "상반기에 삼성토탈 인수가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단기적인 시너지와 모멘텀은 제한적"이라고 전했다.

백 연구원은 이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조 7054억원, 29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3%, 65%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유화사업 자체는 전년동기와 유사한 실적이 예상되지만 폴리실리콘 관련 손실 반영으로 전체 유화 실적은 전년대비 축소될 전망이다.

삼성토탈·삼성종합화학·삼성테크윈·삼성탈레스 등 4개사 소속 노동조합의 반발도 걸지다. 매각 4사 노조위원장 및 비대위 위원장과 간부들이 대전에서 모임을 갖고 오는 7일 상경투쟁을 할 예정이다. 노조위는 2일 성명을 통해 "삼성은 무리한 빅딜을 지금이라도 당장 취소하고 관계사 경영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소리기자 10sang@metroseoul.co.kr

두산중공업, 사우디와 잇단 기술 협약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중동 4개국 방문에 나선 가운데 두산그룹(회장 박용만)이 3월 첫 주를 '중동 위크(Week)'로 장식한다. 두산그룹은 두산인프라코어는 중동 최대 규모 에너지산업 전시회에 참가하고, 두산중공업은 사우디아라비아 발주처와 잇따라 기술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2일 전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2~4일(현지시각) 열리는 '2015 중동 전력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9회를 맞는 이번 전시회에는 60개 국 1400여 개 업체가 참가하며, 약 5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중동 최대 규모 에너지 산업 전시회다.

최근 두산인프라코어는 발전기용 엔진 제품 라인업을 늘리고 제품 성능을 높이는 등 발전기용 엔진 사업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에는 엔진 출력을 기존 대비 15~20% 개선한 신제품을 출시해 전년 대비 20% 성장을 기록했다.

두산중공업은 사우디아라비아 사업분야에서 잇단 기술 협약(MOU)을 맺고 중장기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두산중공업은 오는 3일(현지시각) 사우디 전력청(SEC)과 ▲플랜트 설계와 운영 관리 ▲기존 플랜트 성능 개선 ▲신재생에너지 개발 위한 기술 선수 등 3가지 분야에서 발전플랜트 기술 협수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4일엔 사우디 해수담수청(SWCC)과 해수담수화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 최근 중동에서 빠르게 성장 중인 역삼투압(RO·Reverse Osmosis) 공정을 현지에 최적화해 저비용 고효율 담수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유선미기자 10rune@

2월 완성차 판매, 르노삼성 '나홀로 전진'

내수 3.6%↓, 수출 7.0%↓… 영업일수 감소 영향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지난달 내수 판매량이 설 연휴로 인한 영업·조업일수 감소로 17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휴기간 생산과 판매를 못하면서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등 5개사의 2월 국내외 판매량은 총 64만6236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 감소했다.

국산차 판매량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지난해 8월 63만8372대 이후 7개월만이다.

내수시장에서는 10만3202대 판매로 작년보다 3.6% 줄었는데 이런 내수판매량은 추석 연휴의 파업 기간이 맞물렸던 2013년 9월 10만1021대 이후 최저치다.

이는 지난달 정상 영업일수가 17일에 불과했던 영향이 컸다. 한달이 28일로 짧은데다 설 연휴까지 끼어 있어 올해 2월의 영업일은 통상적인 한달 평균 영업일 22~23일보다 일주일 정도 짧다.

수출물량도 국내 공장에서 조업일수의 감소와 러시아 등 신흥시장의 불안으로 7.0% 줄어든 54만3034대를 기록했다.

업체별로는 르노삼성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5% 판매량이 늘었을 뿐 현대차(-5.5%), 기아차(-8.7%), 쌍용차(-17.6%), 한국GM(-18.0%) 등 나머지 업체는 판매가 줄었다.

르노삼성은 특히 영업일과 조업일수가 줄었는데도 작년 동기보다 2배 이상(102.5%) 늘어난 수치로 1월(150.6%)에 이어 두 달 연속 '더블 성장' 행진을 이어갔다. SM5 노바와 SM3 네오가 내수 판매를 견인하며 판매량을 작년보다 7.9% 늘렸으며 닛산 로그, QM5 등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인기로 수출물량도 260%나 증가한 영향이 컸다.

쌍용차는 소형 SUV 티볼리 출시에 따라 국내 단일차종으로 가장 큰 신장세를 보이며 내수 판매가 19.4% 늘어났지만 조업일수 감소와 러시아 수출물량 축소 영향으로 전체 판매 물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6% 감소했다.

한국GM도 영업일수 감소로 내수시장에서 작년보다 11.0% 줄어든 9163대를 판매하고 수출물량도 19.9% 감소한 3만218대를 기록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판매가 부진했다. 현대차는 쏘나타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작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으나 전체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국내 판매는 8.5%, 해외 판매는 5.0% 줄어들며 전체 35만9982대 판매에 그쳤다.

기아차는 국내에서는 올 뉴 쏘렌토와 올 뉴 카니발 등 주력 차종이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판매량이 1.2% 증가했으나 해외 판매가 10.2%나 줄면서 전체 실적 감소를 면치 못했다.

/양승훈기자 fun@

삼성중공업, 2만TEU급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수주

삼성중공업이 세계 최대 크기 컨테이너선 수주 기록을 경신했다. 삼성중공업은 일본 해운업체인 MOL(미쓰이 O.S.K 라인스)로부터 2만1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4척을 6810억원(6억 1957만 달러)에 수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컨테이너선은 길이 400m, 폭 58.8m, 높이 32.8m로 갑판 면적이 축구장 4개 넓이에 해당하는 초대형 선박이다. 납기는 2017년 8월까지이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수주는 2만TEU급 컨테이너선 시대를 최초로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전했다.

삼성중공업은 5000TEU급이 주종을 이루던 1999년 세계 최초로 6200TEU급 컨테이너선을 개발한 이래 8100TEU급(2002년), 9600TEU급(2003년), 1만3300TEU급(2006년), 1만6000TEU급(2007년) 선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며 컨테이너선의 대형화를 선도해 왔다.

/채소리기자

현대차 '대졸 신입·인턴' 모집 서류스펙 최소화

현대자동차가 2015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과 함께 2015년 상반기 인턴사원 채용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채용 홈페이지(http://recruit.hyundai.com)를 통해 ▲개발, 플랜트 부문의 '신입 정기 공개채용' ▲선락지원 부문의 신입 상시 공개채용 등 두 부문이다.

현대차는 이번 채용의 서류전형에서 동아리·봉사활동, 활동란을 없애는 등 스펙 입력 항목을 최소화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인재 발굴을 위해 면접전형 중 지원자의 실질적인 영어회화능력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입 정기 공개채용부문에는 4년제 정규 대학 2015년 8월 졸업예정자 또는 기 졸업자가 지원 가능하다. 세부 모집 분야는 개발 부문에서 △연구개발(차량설계, 차량평가, 파워트레인, 재료, 기술경영, 상용차개발) △파이롯트 △구매 등 총 8개 분야, 플랜트 부문에서 △플랜트기술 △플랜트운영 △품질 등 3개 분야 총 11개 분야다.

지원서는 2일부터 13일 14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4월 첫째주경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인적성검사 역사에세이 전형에 합격한 지원자는 1차 면접전형에서 핵심역량면접 및 직무역량면접, 2차 면접전형에서 종합면접 및 영어말하기 평가, 신체검사를 통해 최종 입사가 결정된다.

신입 상시 공개채용부문에는 4년제 정규 대학 2015년 8월 졸업예정자나 기졸업자가 지원 가능하다. 세부 모집 분야는 △경영지원 △재경 △IT △국내영업/서비스 △해외영업 △마케팅 △상품기획 등 7개 분야다.

/김종훈기자

"5G 시대 기술은 이런 것"… 이통사 전쟁

모바일월드 콩그레스 개막

모바일 업계 최대 전시회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5'가 2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가운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본격적인 기술 경쟁이 시작됐다.

이통 3사는 4세대(LTE)를 뛰어넘는 5세대(5G) 통신기술과 이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를 대거 선보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번 MWC에서 인텔과 쿠우 등 글로벌 장비 제조사와 함께 5G시대 데이터 전송 용량을 획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였다.

이날 SK텔레콤이 공개한 기술은 5G선행 기술인 앵커-부스터 셀(Anchor-Booster Cell)이다. 앵커-부스터 셀은 LTE 망에 차세대무선랜을 기록제 보조망으로 활용해 대용량 데이터를 끊김 없이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 SK텔레콤은 쿠우와 5G 용량 증대 핵심 기술인 선이중통신(동일 채널 양방향 전송)을 시연했다.

SK텔레콤은 젊고 세련된 감성의 고객을 타깃층으로 한 스마트밴드(Smart Band)도 처음 공개했다. 팔찌 손목시계와 같은 패션 액세서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심플하고 슬림하게 디자인된 것이 특징이다.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의 수신 알림 기능은 물론 운동 목표를 자동조정해주는 라이프케어 기능과 은색 셀카 리모컨, 개인일 관리 등 엔터테인먼트적인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

스마트 히어링 에이드(Smart Hearing Aid)도 처음으로 선보였다. CD 음질 수준의 음악 재생, 핸즈프리 음성 통화 등 블루투스 헤드셋 본연의 기능과 함께 전문적인 난청 보조 기능도 제공한다.

모바일 업계 최대 전시회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5가 2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가운데 SK텔레콤의 스마트 디바이스인 라이프웨어(Lifeware)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SK텔레콤은 2013년 처음 출시한 스마트빔 HD를 기존 제품보다 3배 개선된 해상도를 적용해 전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KT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관람객에게 다가갔다. 스마트폰으로 문을 열 수 있는 도어락, 거울에 날씨, 교통정보 등을 표시하는 스마트 미러, 단말 간 통신기술을 이용한 맞춤형 광고, 모바일 결제 서비스 등이다.

또 KT는 삼성전자와 함께 개발한 5G 핵심기술인 밀리미터파(Millimeter Wave)를 공개했다. 기존 LTE 주파수 대역보다 높은 28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해 100배 이상 빠른 전송 속도를 낼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노키아와 손잡고 범용 하드웨어 플랫폼 기술인 NFV 기반의 네트워크 핵심장비 CSCF를 업계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

NFV는 네트워크 장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 운영, 범용 하드웨어 플랫폼에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가상화해 구동시키는 원리로 5G 시대로의 진화를 위한 선행기술이다.

/유선준기자 rsunjun@metroseoul.co.kr

SK "외식 인재 육성" 2일 오전 서울 통의동 소재 SK행복나눔재단 사옥에서 개최된 SK 뉴스쿨 2015년 입학식에서 신입 교육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 뉴스쿨은 재능과 열정을 갖췄으나 전문 교육의 기회를 갖기 어려웠던 청년들에게 1년 간 무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전문 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 조리학과와 서비스학과로 운영된다. /SK 제공

LG유플러스, 평촌 메가센터 사전 예약 돌입

LG유플러스는 오는 7월 아시아 최대 규모 인터넷데이터센터(IDC)인 '평촌 메가센터'의 오픈에 앞서 사전 예약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LG유플러스는 평촌 메가센터의 구축 현장을 미리 방문,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고객 대상 세미나도 개최한다. 이달 18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개최하는 기업 고객 대상 세미나는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고집적 데이터센터 트렌드와 '평촌 메가센터'의 인프라와 상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프라, 통신장비, 보안, 서버 등을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 부스도 함께 운영한다.

LG유플러스는 7월 오픈 이전 사전 예약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평촌 메가센터는 대지 면적 1만7282㎡, 지하3층 지상7층, 완공 시 연면적 8만5547㎡로 축구장 12개 규모에 달한다. 순수 전산 상면 면적만 2만7768㎡로 아시아 최대 규모다. 전력용량은 166메가와트(MW)로 약 30만 가구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제당 공급전력도 기존 센터의 4배인 10kW에 달한다.

/유선준기자 sunjun@

포스코 재무구조 개선 '온힘'

올해 270억원 규모 부동산 매각하기로

포스코 권오준 회장이 재무구조 개선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엔 보유 건물과 토지까지 매각하며 수익성 개선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이다.

2일 포스코와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해 포항과 광양에 갖고 있던 건물과 부지 등 총 280억원 어치의 부동산을 매각했다.

이는 광양시 금호동 소재 상업시설과 포항시 북구 소재 유휴부지 등 대부분 본연의 업무와 관련 없이 오래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건물과 토지들이다.

포항의 주택단지는 2009년부터 외부인에게 개방돼 회사가 굳이 이를 보유할 필요가 없어졌고 광양의 주택단지도 상가와 주택이 낡아 재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되자 매각했다.

포스코는 이들 부동산 매각을 통해 매각대금 외에도 세금과 유지관리비 등 연간 19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올해는 부동산 매각 규모를 작년의 2배에 육박하는 470억원 수준으로 늘려 재무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포항시 남구에 있는 롯데마트 건물과 부지를 180억원에 매각하기 위해 롯데쇼핑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강 본연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자산 운용의 효율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스코는 지난해부터 계열사 지분매각 등 총 30건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 이중 작년에 11건을 정리했고 나머지도 올해 안으로 성과를 내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권 회장은 지난달 기업설명회에서 지난해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자금이 2조원이었고 올해도 구조조정을 통해 1조원 가량의 현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어떤 사업이라도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내 1위권에 속하지 않거나 철강 핵심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핵심사업을 대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소리기자 hsound@

KT, 차이나모바일·NTT도코모와 5G 기술 협력 선언

KT는 아시아 통신사업자간 전략적 협의체인 SCFA 회의에서 중국 차이나모바일, 일본 NTT도코모와 함께 5G 기술 협력을 위한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SCFA는 2011년 동북아 3개국 대표 통신사간 사업 협력을 위해 구성됐다. 이번 5G 기술 협력을 위한 SCFA 만남은 KT의 제안으로 성사돼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5' 에서 진행됐다.

3사가 발표한 5G 협력 공동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아시아 시장에 특화된 5G 비전 로드맵 공유, 5G 주요 기술 시스템 공동 검증, 글로벌 5G 표준 선도를 위한 글로벌 기구와 협력 활동, 5G 신규 서비스 시장 발굴을 위한 지속적 협업을 진행 등이다.

KT 측은 동북아 중심의 5G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SCFA내 '5G TFT(Task Force Team)' 구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유선준기자

에쓰오일, 신현욱 부사장 등 임원 7명 승진인사

에쓰오일은 신현욱(사진)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 임명하는 등 2일 7명의 임원 인사를 했다.

신 부사장은 한양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1980년 에쓰오일에 입사해 RUC본부장 전무를 거쳐 이번에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면세점 제동 걸린 호텔신라… '이부진 효과' 다 됐나

면세점 입찰전 잇단 고배…주가도 약세

호텔신라가 최근 경쟁사 롯데와의 입찰 승부에서 연거푸 고배를 맛보고 있다. 지난달 인천공항·제주도 등 면세점 사업권을 연달아 롯데에게 내주며 국내시장에서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주가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호텔신라는 전거래일보다 4.04% 떨어진 9만5000원에 마감됐다.

업계 일각에선 호텔신라의 '이부진 효과'에 대해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달 27일 서울본부세관에서 2015년 제1차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롯데면세점을 제주도 시내 신규 면세점 특허 사업자로 선정했다. 새 롯데 제주시 면세점은 롯데시티호텔 1~3층에 들어서며 총 면적은 6270㎡로 기존 서귀포 면세점(2613㎡)의 두배 이상으로 늘었다. 입점 브랜드 수도 150개에서 320여개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서귀포 면세점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신 호텔신라의 입장에선 제주시내에서 경쟁자인 롯데와 직접 면세점 전쟁을 치르는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호텔신라는 앞서 지난달 11일 세계 1위 공항인 인천공항면세점 사업권에서도 롯데에게 밀렸다. 롯데는 8개 권역 가운데 절반인 1·3·5·8 등 4개 구역 사업권을 쓸어갔다. 매장 규모도 기존(2개)보다 50% 이상 커져 전체 면적의 60%를 차지한다. 반면 호텔신라는 2(화장품·향수)·4(주류·담배)·(패션·잡화) 세 권역을 따냈지만 면적이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면세점 운영 현황

- 인천공항 DF 2(화장품·향수) 4(주류·담배) 6(패션·잡화)
- 제주도 면세점 시내면세점 운영
-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3개 터미널(1~3터미널)
- 마카오 국제공항 사업권 획득
- 제주도 면세 시내면세점 운영
- 인수합병(M&A)
- 기내면세점 업계 1위 디패스 인수 추진

무엇보다 이부진(45·사진) 호텔신라 사장이 공을 들여 한국에 들여왔던 인천공항 루이비통 면세점 사업권(5구역)이 롯데에게 넘어갔다. 앞서 이 사장은 루이비통을 입점시키기 위해 인천공항까지 직접 나가서 루이비통 모기업인 LVMH 그룹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을 만나는 등 정성을 쏟은 바 있다. 이번 위찬로 국내 면세사업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루이비통 공항면세점'의 타이틀이 물건너 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면세 사업은 최근 회사 매출 90% 가까이를 차지하며 중요한 카테고리 사업으로 떠올랐다"며 "인천공항 면세사업권에 이어 제주까지 밀리면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면세점 사업은 이부진 사장의 경영 능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 역할을 한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 연거푸 입찰에 고배를 마시면서 이 사장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최근 면세점과 호텔을 직접 챙기며 글로벌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다. 지난달 11일 싱가포르 창이공항면세점을 오픈한데 이어 세계 기내면세점 업계 1위인 디패스(DFASS)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중국 산시성 시안에 호텔을 세울 계획이다.

/김보라기자 bora6013@metroseoul.co.kr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쓰세요" 유한킴벌리가 2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황사와 미세먼지 차단효과를 허가 받은 크리넥스 황사마스크 New(KF94)를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신동빈 회장, 롯데월드몰에 인사 50여명 초청

공사현장까지 안내, 안전성 강조… 홍보 직접 챙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사진)이 재계·사회 주요 인사들에게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와 롯데월드타워의 현황과 안전성을 직접 설명하며 홍보를 직접 챙기고 있다.

2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롯데월드 개장에 앞서 8월께부터 최근까지 신동빈 회장은 재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 50여명(단체회원 포함)의 인사를 롯데월드로 초청, 직접 롯데월드몰 매장·시설과 롯데월드타워 공사 현장 곳곳을 안내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롯데월드몰이 문화·관광·쇼핑을 모두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사실상 국내 최초의 실내 종합몰이라는 점, 최신 공법을 적용한 롯데월드타워의 안전성 등을 회장이 초청 인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27일에는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이 신 회장의 안내로 롯데월드와 롯데월드타워를 둘러봤다. 두 그룹 회장의 회동은 '금호산업 인수'와 연결짓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또 1월 22일에는 아시아소사이어티 코리아센터 회원과 주한 외교인사 30여명의 신년회가 제2롯데월드에서 열렸다. 신 회장은 직접 참석자들을 롯데타워 68층까지 안내하고 "내년 말 제2롯데월드가 완공되면 2만명의 상시 고용과 연 3000억원의 관광 수익을 창출하는 한국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소사이어티는 미국과 아시아의 교류 증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이다. 신 회장은 2008년 설립된 아시아소사이어티 코리아센터의 회장을 맡고 있다.

이 같은 신 회장의 '롯데월드' 직접 챙기기 행보는 롯데월드몰 영업 정상화와 롯데타워 완공 시점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그룹 관계자는 "기회 있을 때마다 각계 인사에게 직접 제2롯데월드·롯데타워의 안전성 등을 설명하겠다는 회장의 의지가 강한만큼 앞으로 더 많은 인사가 롯데월드로 초청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지난달 9일 제2롯데월드 현장을 직접 찾아 "1주일에 한 번은 본사에 제2롯데월드 현장을 직접 방문, 점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보라기자

"1조원 아침식사 시장을 잡아라"

CU·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공략 강화

1조원대 아침식사 시장을 잡기 위해 편의점 업계가 제 각각의 스타일로 아침식사족(族) 공략에 나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씨유(CU)는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시간대에 샌드위치·모닝 머핀·커피 등 25가지 품목으로 구성된 '씨유 모닝 세트' 구매 시 최대 37%를 할인해 준다.

관련 세트 메뉴는 총 3종으로 빵과 씨유 PB(자체브랜드)우유로 구성된 세트(1500원)부터 네비아나 바나나 등 주먹밥과 커피 등의 음료를 선택하는 세트(2000원)와 메론 베이글·토스트와 음료 세트(2500원)로 구성됐다.

이밖에 아침 시간대에 관련 상품들의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씨유 모닝 세트에 베이글·머핀 등을 취급하는 등 고객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매장 내에 아침식사 상품 전용 진열 공간인 '모닝 존'을 구성해 고객의 쇼핑 편의성도 높였다.

세븐일레븐도 지난달 아침시장을 겨냥해 '우리들의 아침 시간'이라는 조리빵 브랜드를 론칭하고 샌드위치 2종을 출시했다. 기존의 샌드위치에서 벗어나 빵을 고급화해 전문점 수준의 맛과 품질을 올린만큼 까다로운 소비자 입맛을 충분히 만족시켰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김보라기자

홈플러스 홍보임원 안희만씨

홈플러스는 홍보 담당 임원으로 안희만 부사장(56·사진)을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안 부사장은 1959년생으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경희대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학위를 받고 영국의 던디대학교(Dundee University)에서 국제경영 금융거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안 부사장은 설도원 부사장의 후임으로 홈플러스 이미지 구축을 위해 브랜드 전략 수립 및 관리 등 대내외 활동을 통해 회사 브랜드 가치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유가공협회장에 정수용씨

유가공협회는 3월 2일자로 12대 회장에 정수용(64·사진) 전 빙그레 부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유가공협회는 2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박건호 회장 후임으로 지난 달 25일 정수용씨를 회장에 선출했다. 정 신임 회장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1년이다. 신임 정수용 회장은 당선 수락 인사말에서 "FTA 등 국내 낙농과 유가공산업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업계 현안을 지혜롭게 타개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1번가, 여성 라운지 오픈

SK플래닛 11번가는 이달부터 여성 특화서비스를 모은 '레이디라운지' 프로모션을 열고 쇼핑은 물론 자기계발 강연, 쿠킹클래스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대거 운영한다.

레이디라운지는 총 4개 코너로 운영된다. 특급정보 라운지는 MD들이 소개하는 추천 상품 및 알뜰 금융혜택을 전해주는 코너다. 전상여자 라운지에선 종무원과 함께 하는 11번가 고객 전용 쿠킹클래스 강의가 운영된다.

튼튼한 국가 재정의 새로운 시작, 新GO!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신고상담** 국번 없이 ☎ 110
- **팩　　스** 02-2110-0678
- **인 터 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방문·우편**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2동 605호)

스포츠업계 "女心 잡아라"

디자인 강조한 운동화 신제품 출시 봇물

3월 본격적으로 봄 시즌이 시작되면서 스포츠웨어 업계가 운동화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했다. 특히 최근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운동화가 일상화로 자리잡으면서 디자인을 내세운 제품을 주력으로 내놓고 있다.

휠라는 최근 라이프스타일에 '컬라또'를 출시했다. 아이스크림을 연상시키는 파스텔 컬러에 스커트나 레깅스 등 캐주얼 아이템에도 무난하게 코디할 수 있도록 뒷굽을 높인 레트로 조거(조깅하는 사람) 스타일로 제작했다. 실제 젤라또 아이스크림의 명칭으로 쓰이고 있는 브라골라(딸기 젤라또), 멘티(민트 젤라또), 조콜라또(초콜렛 젤라또) 등의 애칭도 붙여 여성층을 공략한다.

워킹화를 주력으로 하는 프로스펙스 역시 올해 라이프스타일 워킹화 'W LITE ZEB'를 지난달 중순 선보였다. 이 제품은 블랙 앤 화이트 컬러의 지브라(얼룩말) 패턴을 적용하면서 패션성이 부각된 것이 특징이다.

뉴발란스는 은은한 바이올렛 색상의 ML999AA라벤더 스니커즈를 한정판으로 선보였다. 999 시리즈의 특징인 높은 뒷굽과 파스텔 컬러를 이번 제품에도 적용했다. 또 일반 기능성 라인과는 달리 스웨이드 원단을 사용해 여성스럽고 빈티지한 느낌을 살렸다.

아이유를 전속 모델로 영입하면서 타제품 보았던 스베누 역시 올해 '캔디 시리즈'를 출시했다. 캔디를 연상시키는 5가지 색상으로 출시됐으며 3.5㎝의 굽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이성 고객을 겨냥해 '화이트데이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운동화가 판매되는 3월부터 업계가 판촉전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능성을 강조했던 과거와 달리 레깅스, 스커트 등 캐주얼과 매치했을 때 여성미가 드러나는 컬러를 사용하고 다리가 길어보이도록 뒷굽을 높이는 등 디자인을 전면에 내세우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대목 맞은 가구·식기

신제품 출시 이벤트 봇물

혼수 및 이사철 대목을 맞아 가구·식기 업계가 신상품을 출시와 함께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씰리침대는 봄 신제품을 출시하고 이달 말까지 백화점 매장에서 봄맞이 초대전을 진행한다. 포스처피딕 스프링과 유니케이스드 KT™ 등 씰리만의 서포트 시스템이 탑재된 '리도', '에뮬레이션', '셀러브레이션' 등 매트리스를 비롯해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의 프레임을 선보였다. 초대전을 통해 S131 프레임과 셀러브레이션 매트리스를 세트로 구입하면 약 40% 이상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시몬스는 31일까지 침대 세트 구매 시 신제품 뷰티레스트 혼 원형스툴을 증정하는 '제인지 마이 베드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전국 대리점·백화점.

온라인에서는 회원등급 이상의 퀸 사이즈 침대 세트를 구매할 경우 뷰티레스트 혼 원형스툴 시리즈 3종 중 1종을 증정한다.

현대리바트는 이즈마인의 신제품 '뉴 프렌즈 드레스룸'을 출시했다. 현성은 대리점과 플래그십에 신혼부부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20여 개 콘셉트 룸을 마련해 집을 꾸미는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요도 예단과 혼수 제품을 최대 30% 할인한 '명품 혼수 예단 전'을 이달 말까지 연다. 100만원 이상 예단 구매 고객에게는 '고급 보자기 포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수정기자

소셜커머스 '봄맞이 리빙 페어'

소셜커머스업계가 따뜻한 봄을 맞아 새 기분으로 새 출발하려는 소비자들을 위해 다양한 행사에 나섰다.

티몬은 오는 15일까지 가구와 작은 소품부터 소설 최초로 시공까지 해주는 인테리어 상품을 모아 최대 20%까지 할인해주는 기획전 '봄맞이 리빙페어-집꾸미기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기존 온라인에서도 최저가로 120만원대에 판매되던 주방 인테리어 시공을 99만원에, 87만원에 팔리던 붙박이장은 77만 90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내놨다.

글로벌 가구브랜드 이케아는 쿠폰적용가로 미카엘 3단 서랍 4만 5900원, 토르본 스위블 사제용 의자를 4만3430원에 판다. 셀프 인테리어 제품으로는 노루페인트의 순앤수 벽지 페인트 2ℓ 세트가 1만 8000원, 다양한 무늬의 단열벽지가 800원부터 판매한다. 이밖에 최대 2만원의 할인쿠폰 지급과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등의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위메프는 오는 9일까지 겨인의 황사 후유증을 씻어낼 수 있는 봄맞이 대청소와 새 단장을 위한 이벤트 '청소를 부탁해'를 연다. 이벤트 기간 동안 2만원 이상 구매 시 적용되는 3000원 즉시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특히 소비자 편의를 위해 3000원 할인쿠폰을 한번만 다운받으면 이벤트 기간 내 1인당 최대 7회에 걸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봄맞이 새 단장을 위한 상품을 가장 알뜰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반대어 득가담'에서는 매일 2개의 제품을 한번 더 할인한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한다. 또 위메프는 오는 16일까지 새 봄맞이 필수 아이템들만 모아 선보이는 '새봄맞이 기획전'도 편다. 한샘의 생활소품부터 침구까지 24종의 인기 아이템들을 1만1760원부터 수만9000원까지 다양한 가격으로 준비했다. /김보라기자

피죤 "2020년 매출 2000억 달성"

종합생활용품 전문기업 피죤은 본사 대강당에서 '2020 비전 선포식'을 갖고 'Vision 2020'을 발표했다. 제품군을 확장하고 중국 등 주요 전략 국가 수출도 확대할 방침이다.

피죤의 'Vision 2020'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2020년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종합생활용품 기업으로 발돋움 하기 위한 전략 플랜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상생'과 '혁신'의 내용을 담았다. 2020년까지 매년 20%씩 성장해 2000억원대 매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간편 속풀이' 제품 잘나가네

콩나물해장국밥·상하이식짬뽕밥 등인기

식품업체들이 해장용 간편식 제품을 속속 선보이며 애주가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대상㈜ 청정원에서 내놓은 '정통 컵국밥'은 컵라면처럼 용기안의 건조밥에 액상스프와 건더기를 넣고 끓는 물만 부으면 얼큰한 국밥이 완성되는 제품이다. 진한 국물 맛을 위해 분말이 아닌 액상스프가 쓰였다. 사골곰탕국밥·콩나물해장국밥·나가사키식짬뽕밥·상하이식짬뽕밥 등 4종으로 구성됐다. 특히 '콩나물해장국밥'은 콩나물과 북어를 넣어 시원한 맛으로 해장용으로 인기다.

라면처럼 끓여 먹는 국밥 '밥이라서 좋다'도 있다. '상하이식짬뽕밥'은 매울과 청양고추로 맛을 내 얼큰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이며 '사골미역국밥'은 담백하고 순한 국물로 속을 달래준다.

세븐일레븐은 최근 간편국밥 '황태해장국밥'과 '육개장국밥' 2종을 출시했다. '황태해장국밥'은 황태채와 콩나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시원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 '육개장국밥'은 소고기, 토란, 고사리 등 풍부한 건더기와 얼큰한 국물 맛이 특징이다. 두 제품 모두 국물팩과 햇반으로 나뉘어 구성됐다.

홈플러스도 자체 간편식 브랜드 '싱글즈 프라이드'를 통해 '속풀이 북어해장국', '속풀이 선지해장국' 등을 선보였다. 전자레인지 조리나 끓는 물 중탕으로 얼큰한 해장국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암웨이 '봄엔 사랑 展' 개최

한국암웨이(대표 박세준)는 분당 암웨이미술관에서 2일부터 4월 24일까지 '봄엔 사랑 전'을 개최한다. 이우림, 팀승, 서기환, 황나현 등 네 명의 젊은 작가가 사랑에 대해 해석한 2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사실적이면서도 몽환적인 작품들은 헌신과 비현실, 초현실의 공간을 넘나들면서 진정한 우리의 모습과 사랑의 가치 발견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암웨이 브랜드 체험센터 홈페이지(www.ABCenter.co.kr) 참조.

남성잡화 브랜드 '스텔론' 론칭

더 베이직하우스가 신규남성잡화 브랜드 '스벨로'를 론칭했다.

더 베이직하우스가 남성 잡화를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스벨로를 통해 잡화·액세서리 군을 보강하여 토털 패션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스벨로는 코소디자인이 지난 2012년 론칭한 디자이너 슈즈 브랜드로 더 베이직하우스는 코소디자인과 스벨로를 인수해 지난 6개월간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했다. 기존의 국내 슈즈 브랜드와는 차별화된 디자인과 까다로운 공정 과정을 거친 고감도 슈즈를 선보인다.

LG생건 '오휘 익스트림 화이트'

LG생활건강은 화이트닝 스킨케어 신제품 '오휘 익스트림 화이트' 7종을 출시했다.

핵심 성분인 '스노우 비타민™'은 결정체처럼 고농축된 화이트닝 비타민성분이 바르는 즉시 스르르 순하게 녹아 피부 속부터 맑고 투명해진 눈꽃 피부를 선사해 준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오휘피부과학연구소는 아시아 여성의 피부 칙칙함을 개선하기 위해 열과 빛에 강한 저자극 화이트닝성분을 배합으로 '스노우 비타민™'을 완성했다.

"홈리스 여성 뼈 건강 도와요"

다국적 제약기업 GSK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특성을 살린 나눔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중 국민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다국적 제약기업 GSK는 지난해부터 홈리스 여성들의 뼈 건강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본상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본상이란 '뼈 건강에 힘을 더하고(bone+힘), 뼈 건강의 중심을 찾자(bone+心)'는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게다가 한국인의 뼈 건강을 생각하는 GSK의 본심(本心)도 담겨있다.

그동안 캠페인에는 임직원들과 홈리스 여성쉼터인 열린여성센터 입소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또 전국 의료진들의 도움으로 후원금 적립과 운동회, 도시락 배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특히 GSK는 대표적인 건강 소외계층인 홈리스 여성들이 불충분한 영양상태와 알코올 중독 등으로 골소실의 위험이 높고 골다공증 등 뼈와 관련된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해 캠페인의 가장 중요한 참여자로 이들을 포함했다.

아울러 캠페인 수혜자가 캠페인의 확산자로 직접 나서고 있다는 점도 새롭다. 최근 사회공헌활동이 다변화되면서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재능 기부자 등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본심 캠페인의 경우 수혜자인 홈리스 여성들은 서울역 인근 열린일문화카페에서 노숙인과 쪽방촌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는 것은 물론 우유 등을 챙겨 독거노인들에게 뼈 건강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있다. 본인의 재능을 나누는 기부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캠페인의 취지를 직접 전달하는 '뼈 건강 전도사'로 활약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GSK는 캠페인을 통해 열린여성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던 여성들에게 운동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도 했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홈리스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동엽 GSK 제약마케팅 총괄 본부장은 "GSK는 근골격계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골다공증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뼈 건강을 위한 생활 속 실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드림라이너 좌석 특가 실시

영국항공 30일 운항 개시 기념

영국항공이 보잉 787 드림라이너의 서울~런던 노선 도입을 기념해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특가를 실시한다.

비즈니스 클래스인 클럽 월드(Club World)와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인 월드 트래블러 플러스(World Traveller Plus), 그리고 이코노미 클래스인 월드 트래블러(World Traveller) 세 가지 좌석이 할인된다. 또 여행기간은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며 모든 항공권은 공항세와 유류할증료를 포함하고 있다.

예약은 국내 여행사 또는 영국항공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영국항공은 LED무드 라이팅 시스템과 최신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등을 탑재하고 있는 보잉 787 드림라이너를 오는 30일부터 운항할 예정이다. /최재용 기자

예매와 발권을 한번에 고속버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홍보모델인 개그우먼 김지민이 2일 서울 반포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예매와 발권 등이 가능한 E-Pass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강술래, 나들이족 위한 가정간편식 할인

헤어 커트 무료이용권 증정 홈페이지 이벤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야외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가정간편식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이달 15일까지 100% 한우로 우리네 맛이 진하며 면역력을 높이고 기력 보충에 좋은 한우사골곰탕박스(350㎖ 10팩)을 약 50% 할인된 3만1500원에 판매한다.

또 갈비탕선물세트(500㎖ 7팩·14인분)는 3만9500원, 육개장선물세트(500㎖ 7팩·14인분)는 2만5000원에 각각 30% 할인한다. 모두 레토르트 방식을 적용해 상온보관이 가능하며,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냄비에 넣고 끓이거나 봉지 째 데워 바로 먹을 수 있다.

매장 인기메뉴로 구성된 한우세트(한우왕념구이 560g+한우불고기 500g)도 41% 할인된 6만5000원에 구매 가능하며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박스(10봉)도 30% 할인된 4만2000원에 선보인다.

한편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고객마당 경품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청담동 헤어&메이크업숍 '작은차이'의 헤어커트 무료이용권(5만5000원)을 준다. /김수정 기자 ks@015@

영어공부, 티칭에서 코칭으로

거꾸로영어, 홈페이지 정식 오픈

거꾸로영어(www.ssm.co.kr)가 지난달 25일 홈페이지를 정식 오픈하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거꾸로영어는 기존 수동적 암기 위주의 교육법 대신 학습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며 영어학습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입식 티칭교육보다는 동기 부여를 통한 자기주도적 코칭교육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돼 있으며 학습자가 미리 공부한 내용을 코치와 함께 재학습해 능률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변진욱 거꾸로영어 대표가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시스템을 개발했다. 또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기반으로 PC와 핸드폰으로도 사용이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다.

변 대표는 "교육은 티칭이 아닌 코칭이다. 거꾸로영어가 거꾸로 굴러가던 많은 이들의 영어 실력을 제대로 굴러가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꾸로영어는 홈페이지 오픈을 기념해 무료 수강권과 유럽여행 티켓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정재용 기자

모공관리 수제비누 '아오아 생크림 모공 클렌징 바'

프로스넥막스는 최근 아오아의 클렌징 라인 '생크림 모공 클렌징 바'를 출시했다.

아오아는 2006년 미 화장품협회(PCPC)에 세계 최초로 원료 등재된 AAPE가 함유된 기초화장품이다. 기초 라인은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제품으로 늘어지고 손상된 피부를 탱탱하고 탄력있게 가꿔준다고 업계 측은 설명했다.

'생크림 모공 클렌징 바'는 모공관리 수제비누로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 원료를 사용하지 않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바디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거품망을 이용하면 더욱 풍성한 모공거품 마사지를 할 수 있다. 모공관리 각질 제거, 노폐물 제거에도 효과적이다.

피부 보습막으로 알려진 히알루론산과 세라마이드가 함유된 '아오아 울트라 쾌이셜 아쿠아 크림'과 카렌듈라 성분이 함유돼 피부 진정과 수분감을 전해주는 고보습 클렌징 폼인 '아오아 멀티 이펙트 폼 크림'도 이달 출시될 예정이다.

입학·화이트데이 시즌을 맞아 스넵생 코스메틱 쇼핑몰을 통해 기획전도 진행된다. /김수정 기자

'분양 광풍' 부산·대구 지역주택조합 확산

"분양가 저렴 불구 사업 장기화 땐 비용 늘어"

최근 분양시장 광풍을 이끌고 있는 부산과 대구에서 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와 조합설립인가 등이 잇따르고 있다. 풍부한 주택수요가 직접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까지 눈을 돌리는 것이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에 이어 지방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같은 생활권역에 사는 수요자들이 주택 마련을 위해 결성한 조직이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가구주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보통 아파트는 시행사가 땅을 매입한 후 건설사와 공사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분양된다. 반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 토지를 산 뒤 건설사에게 짓게 하는 방식이다. 자기 땅에 직접 아파트를 건설하는 셈으로, 분양가가 저렴해 지난해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지방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은 부산이다.

사하구 신평동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신평 단양수지인 아이시티' 지역주택조합은 최근 지구단위계획 심의 산정을 완료했다. 부산에서 순수 조합원들로만 구성된 첫 지구단위 신청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달 중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 5월에는 사하구 괴정동 일대에서 총 462가구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괴정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사하역 역세권 단지로 올해 1월 현대엔지니어링과 시공 약정서를 체결했다.

또 부산 금정구 일대에 들어서는 '부산 장전역 서희스타힐스'는 최근 서희건설과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했고, 동래구 사직동 일대에서는 3월 사직 지역주택조합(가칭)이 '이안 사직동' 지역주택조합 첫 조합원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대구에서는 수성구 만촌동과 '범어동'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지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대구 지역주택조합 1호인 '만촌동 신동아파밀리에'는 지난해 7월 홍보관 오픈 이후 2개월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지난달 착공에 들어갔다. 범어역 초역세권 단지인 '수성 범어역 리빌리스1' 지역주택조합도 2월 초 SK건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주택시장 회복세와 함께 분양가가 저렴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지방에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조합원 모집에 실패해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 부담해야 할 비용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2월 건설경기 12년 만에 최고

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80선을 회복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CBSI가 전월 대비 7.7포인트 상승한 83.5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2월 CBSI가 80을 상회한 것은 2003년 2월(84.3) 이후 12년 만이다. 2010년 이후로는 새 경제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은 지난해 8월과 9월, 연말 공공 발주물량이 증가한 12월에 이은 네 번째 기록이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월에 비해 공사발주가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 전월 CBSI의 큰 폭 하락에 따른 통계적 반등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며 "무엇보다 최근 주택경기의 견조한 회복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상대적으로 주택매출 비중이 높은 중견업체가 2월 CBSI 상승을 주도한 것을 볼 때도 최근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한 주택경기 회복이 건설기업 체감경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업체는 전월과 동일한 100.0을 기록해 3개월 연속 100선을 유지했다. 중견업체는 전월보다 18.7포인트 상승한 90.6으로 집계돼 2개월 만에 90선을 회복했고, 중소업체도 56.0으로 4.1포인트 소폭 올랐다.

3월 전망치는 2월 실적치 대비 12.4포인트 높은 95.9를 기록했다. 이는 2009년 10월 조사된 전망치 110.8 이후 5년 5개월 만의 최고치로 건설업체들의 3월 경기에 대한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홍일 연구위원은 "통상 3월에는 혹한기가 끝나고 발주물량이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CBSI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는 실제 발주물량, 주택 분양률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선옥기자

인도네시아에, 삼성물산 1호 마을 완공 삼성물산이 인도네시아에 삼성물산의 이름을 딴 마을을 완공했다. 삼성물산 인도네시아 지원 현장의 지원들이 입주민에게 새 주거시설 입주를 기념하는 열쇠를 전달하고 있다. /삼성물산 제공

2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사상 최대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건수가 전달대비 32.1% 늘어난 5250건으로 집계됐다.

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 수치는 2011년 1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건수로 직전 최고치는 지난해 2월 4979건보다도 늘어난 수치다. 지난 2월 긴 설 연휴가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상승세는 더 눈에 띈다.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월세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거래는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남·송파·서초 등 학군 수요가 큰 지역에서 거래가 많았다. 강남은 7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에서 542건, 서초에서 465건이 각각 거래됐다. 2년 연속 2월에 월세 거래가 많은 것은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이들 지역으로 전입하려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 강남 대치동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이들 지역은 원래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많은 곳인 데다 봄 이사철 전 서둘러 집을 장만한 신혼부부, 재건축 이주 단지 여파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아파트 전세 거래는 1만2943건으로 지난해 2월 1만4694건보다 11.9% 감소했다. 1월 1만319건보다는 25.4% 늘었다.

/김학철기자 kimc0604@

현대건설, 무재해 목표 '안전경영' 박차

현대건설이 안전을 기업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무재해 건설현장' 실현을 목표로 안전경영에 박차를 가한다.

현대건설은 현장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전사적인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임직원은 물론,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지난해 1671회였던 상시 안전점검은 올해 3475회까지 늘린다. 특히 주말(금요일 포함)에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주말 현장 특별점검을 지난해 119회에서 올해 672회로 대폭 확대한다.

경영층이 수시로 국내외 현장을 방문해 작업 현황, 지침 준수상태 등을 직접 점검하고, 상시점검단(본사)과 완얼점검단(현장) 등 안전점검단을 운영해 현장 안전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카타르 국립박물관 현장을 방문한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앞서 정수현 사장이 경포대 현대호텔·아모레퍼시픽 신사옥 등 국내 공사현장과 쿠웨이트·카타르·스리랑카 등 해외 시업장을 방문, 직접 밀착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현대건설은 또 전사적인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임직원은 물론 협력업체와 근로자들까지 안전교육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4174명이었던 교육 대상이 올해는 6200명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위험공종 작업에 대한 근로자들의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 작업 투입을 금지한다. 또 현장에서 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신규 또는 고령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들은 특별 관리한다.

한편 현대건설은 지난달 12일 본사 대강당에서 정수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경영 선포식'을 실시한 바 있다.

선포식에서 정수현 사장은 "현대건설은 현장 안전을 최우선으로 가치로 안전 문화 구축을 위해 경영층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안전 관리 강화와 개선으로 무재해 건설현장을 실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옥기자

"결핍 있는 장수에 확 끌렸죠"

영화 '순수의 시대' 신하균

1998년 '기막힌 사내들'로 영화에 데뷔한 뒤 신하균(40)은 새로움을 향한 여정으로 필모그래피를 차곡차곡 쌓아왔다. '공동경비구역 JSA' '웰컴 투 동막골' '런닝맨' 등 대중적인 작품은 물론 '지구를 지켜라' '복수는 나의 것' '카페 느와르' '박쥐' 등 독특하고 신선한 작품들까지 두루 섭렵하며 충무로의 독보적인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오는 5일 개봉하는 '순수의 시대'에서 신하균은 또 다른 도전을 했다. 데뷔 이후 처음 출연하는 사극이기 때문이다. 조선 개국 7년, 이방원이 일으켰던 왕자의 난을 배경으로 서로 다른 욕망과 순수를 꿈꿨던 세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에서 신하균은 순수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내거는 장군 김민재를 연기했다.

"처음 해보는 사극이라 다른 이미지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많았어요. 무술도 해야 하고 말도 타야 하잖아요. 지금 나이에 표현할 수 있는 사랑 이야기라는 점도 좋았어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모든 걸 내던지는 건 남자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로망' 아니까요."

데뷔 이후 처음 사극 도전
목숨 건 사랑 – 남자 로망
관객과 나이 들어가고파

신하균의 도전은 영화 오프닝 장면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살육과 폭력으로 가득한 전장에서 적들과 싸우던 김민재가 홀연히 짓는 허무한 표정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하균의 이미지와는 또 다른 모습이 있다. '신흥절작인 근육'이라는 홍보 문구로 소개되고 있는 근육질 몸매 또한 그의 팬에게는 신선한 변신으로 다가갈 것이다.

그러나 신하균이 김민재에게 끌린 것은 단지 외적인 변화 때문만은 아니었다. 김민재가 내면에 갖고 있는 깊은 결핍이 배우로서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김민재는 완벽한 장수가 아니에요. 본인이 원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요. 어릴 때의 트라우마도 있는, 외롭고 답답하게 사는 사람이라 안쓰럽고 불쌍했어요. 그런 김민재가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처음 느낀 사랑의 감정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신하균은 작품마다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해왔다. 그 캐릭터의 공통점은 바로 '결핍'에 있다는 것이다. 신하균은 이런 캐릭터를 주로 연기해온 이유에 대해 "완벽한 사람에게서는 매력을 잘 못 느낀다"고 말했다. "작품을 선택할 때마다 꼭 어떤 결핍이 있는 인물을 고르려고 하지는 않아요. 다만 완벽한 영웅보다는 부족하고 안쓰러운 점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더 큰 매력을 느끼죠. 저 역시도 그들처럼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연기에서 늘 완벽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온 신하균이기에 이 말은 의외처럼 들린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인간 신하균은 완벽주의와 거리가 멀다. 애니메이션을 즐겨 보고 장난감과 레고, 피규어 등을 만들고 모으는 것도 좋아한다는 그에게 변하지 않는 소년의 모습이 있었다. 소문난 막걸리 애호가이기도 한 그가 "한때는 재즈에 빠져서 막걸리를 마시고 재즈를 듣기도 했다"며 환하게 웃는 모습에는 완벽주의자에게서는 느끼기 힘든 여유와 편안함이 있었다.

신하균은 처음 경험한 사극에 대해 "영화적으로 풀어낼 게 많은 매력적인 장르"라며 "다른 시대와 신분을 연기할 수 있다면 또 도전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늘 신선함을 찾아온 그는 과거를 돌아보기보다는 현재에 집중하며 배우의 길을 걸어갈 생각이다.

"인간 신하균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그건 작품으로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웃음). 배우로서 목표가 있다면 관객과 같이 나이가 들면서 미래가 궁금해지는 배우가 되는 거예요. '저 배우는 1년이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할까?'라는 기대를 갖게 만드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김근주) 디자인/김아람

star bag

'우리 결혼했어요' 출연

신인 배우 **공승연**이 MBC 예능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에 출연한다. 프로그램 진행 방식에 따라 싸인볼 투 이종현·슈퍼주니어M 헨리 중 한 명과 가상 부부생활을 하게 된다. 공승연을 비롯한 새 멤버들의 데이트 현장은 오는 14일 방송될 예정이다.

첫 단독 태국 팬미팅 성황

배우 **조인성**이 지난달 28일 첫 단독 태국 팬미팅을 열었다. 조인성은 이날 근황을 이야기하며 팬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줬다. 특히 셀카봉을 들고 촬영하는 모습을 보여줘 분위기를 돋궜다. 조인성은 현재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

'용감한 가족'서 민낯 공개

배우 **박주미**가 6일 방송되는 KBS2 예능프로그램 '용감한 가족'에서 굴욕 없는 방부제 민낯을 공개한다. 동안 외모로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그는 박영수와의 신혼 생활에 빠진 새댁으로 참여하며 신선한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신곡 '마리아 마리아' 발표

가수 **김도향**이 신곡 '마리아 마리아'를 2일 발표했다. 김도향은 지난해 '마이 라이프'에 이어 이번에도 프로듀서팀 플라스틱과 호흡을 맞췄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타는 감정을 꾸밈없이 표현한 라틴 블루스 장르다.

연주자들 "이제 우리도 무대 주인공"

SNS 휩쓴 '인스트루멘탈 챌린지'… 드러머·기타리스트 등 릴레이 동참

가수 뒤에서 묵묵히 무대를 지켜온 연주자들이 주인공으로 나섰다.

기타리스트·베이시스트·드러머·퍼커셔니스트·피아니스트 등 연주자들 사이에서 새해부터 시작된 '인스트루멘탈 챌린지'에 많은 뮤지션들이 동참하며 그 열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영어 '인스트루멘탈(Instrumental·기악곡)'과 '챌린지(Challenge·도전)'의 합성어인 '인스트루멘탈 챌린지'는 연주자 한 명이 자신의 영상을 올린 후 3명의 연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24일 싱어송라이터 임헌일은 자신의 SNS를 통해 약 15초 분량의 짧은 일렉 기타 연주 영상을 공개하며 음악 동료들에게 연주 영상을 이어 올릴 것을 요구했다. 장난스럽게 시작된 연주 릴레이는 기타리스트 박주원이 '인스트루멘탈 챌린지'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며 본격적으로 불이 붙기 시작했다.

박주원은 "연주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즐거우면 그냥 거기서 끝"이라고 이번 릴레이를 정의했다.

그는 "'대한민국 음악계를 살리겠다'는 거창한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연주자들이 누리는 기쁨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었다"며 "지목받은 후 쑥스러움을 이겨내고 올리는 연주자도 많다. 부끄럽고 귀찮아도 자기 연주를 들려주고 싶은 것이 연주자들의 마음이자 그들의 기쁨"이라고 설명했다.

'인스트루멘탈 챌린지' 1인 소개 페이지에 게시된 연주자들의 영상들. 왼쪽부터 시계방향 드러머 임주찬, 베이시스트 서영도, 작곡가 이규현(유니크노트), 재즈 바이올리니스트 강이채 /인스트루멘탈 챌린지 페이스북 페이지

해당 페이지에 올라온 영상은 30초에서 1~2분 정도로 짧다. 박주원은 "긴 시간 연주하라고 하면 대부분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며 "가볍게 즐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스튜디오 세션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인 샘리는 가수 정엽의 노래 작업 현장에서 찍은 연주 영상을 공개했다. 샘리의 화려한 기타 플레이 뒤로 고개를 끄덕이며 박자를 맞추는 정엽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드러머 이정훈은 "민망하게 혼자 드럼을 치게 만들어줘서 고맙다"며 솔로 드럼 플레이 영상을 올렸다. 노래하는 목소리 없이 오로지 악기 연주만으로 채워진 영상에 음악팬들의 '좋아요'가 쉴새없이 이어졌다. 현재 해당 페이지엔 지목을 받지 않은 연주자들도 자발적으로 영상을 게재하고 있다.

페이스북 페이지가 아닌 곳에서도 '인스트루멘탈 챌린지'는 이어진다. 다이나믹듀오 나인, 용린, 조정치, 류석원, 최윤석, 강제욱 등은 각자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주 실력을 뽐냈다. 연주자뿐만 아니라 가수 알리, 린, 정엽 등도 이번 릴레이에 동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주원은 "처음 시작은 세션맨 위주였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서 놀랐다"며 "재미로 시작한 일이지만 그 안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이나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이 협심해 더 새로운 방법으로 음악을 해도 좋겠다"고 전했다. /김지민기자 kimjm@metroseoul.co.kr

뮤지컬 '파리넬리'의 루이스 초이(왼쪽)와 뮤지컬 '팬텀'의 임선혜.

성악가들 뮤지컬 외출 기대된다

'파리넬리' 루이스 초이·'팬텀' 임선혜 주목

가수들의 뮤지컬 진출은 이미 오래 전 일이다. 초창기만 해도 이들은 높은 실력을 요구하는 발성과 연기력 논란 등으로 애를 먹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기존 뮤지컬 배우들과 동화하면서 엄연한 현재 독보적인 자리에 올라 있다. 옥주현·바다·김준수 등이 좋은 예다.

최근에는 실력과 관록을 갖춘 기성 성악가들이 대거 뮤지컬 무대로 진출해 새로운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1월 스토리의 파격적인 재해석을 통해 평단을 놀라게 했던 '파리넬리'는 뮤지컬 최초로 카운터테너 성악가 루이스 초이를 주연으로 내세워 감동을 선사했다.

루이스 초이는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악대학의 첫 아시아 카운터테너로 유럽 무대에서 바로크 오페라의 명작이라 불리는 '디도와 에네아스', '이도메네오' 등 다수의 오페라를 선보이며 카운터테너로서의 실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카운터테너 중에서도 보기 드문 소프라노 음역대를 소유해 화려한 고음과 섬세한 테크닉으로 찬사를 받았다.

1월 공연에서 98%의 객석점유율을 기록한 '파리넬리'는 오는 4월18일~5월10일 유니버설 아트센터에서 재공연한다. 제작사 HJ컬쳐 관계자는 "벌써 루이스 초이를 애타게 기다리는 관객들의 '파리넬리앓이'가 대단하다"고 전했다.

올해 최고 기대작으로 떠오르고 있는 뮤지컬 '팬텀'에는 고(古)음악계의 한류스타라 불리는 임선혜가 출연한다. 유럽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그녀는 르네 야콥스와의 모차르트 오페라 시리즈 5편을 비롯한 20여 편의 음반으로 영국의 그라모폰 음반상, 독일 비평가상 등 권위 있는 음반상을 휩쓸었다.

'팬텀'의 연출을 맡은 로버트 요한슨은 "임선혜는 놀랍도록 유연하고 섬세한 테크닉과 뛰어난 흡입력을 가졌다. 극 중 오페라 가수인 크리스틴 다에의 다양한 오페라 레퍼토리를 소화할 수 있는 배우로 적격"이라며 "몇 차례에 걸쳐 장문의 편지를 보내는 등 그녀를 섭외하기 위해 2년간 공을 들였다"고 밝혔다.

가스통 르루의 추리소설 '오페라의 유령'을 원작으로 한 '팬텀'은 그동안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던 팬텀의 비밀스러운 유년기 시절을 집중적으로 해부한다. 4월 28일~7월 26일 충무아트홀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이현진기자 mkim@

유승호 "2년 전보다 더 큰 책임감"

'조선 마술사' 연기 복귀 각오

배우 유승호의 군 제대 후 첫 작품으로 화제를 모았던 영화 '조선 마술사'(감독 김대승)가 지난달 27일 크랭크인했다.

'조선 마술사'는 위험한 사랑에 빠진 조선 최고의 마술사가 거대한 음모에 휩싸여 운명을 거스르게 된다는 내용의 영화다.

유승호는 주인공인 조선의 마술사 환희 역을 맡았다. 촬영 전 가진 고사와 시나리오 리딩에 참여한 유승호는 2년 만에 연기 활동을 재개하게 된 것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그는 "제대 후 첫 작품이라 많이 기대가 된다. 2년이라는 공백이 나에게는 참 컸다.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확실한 건 2년 전보다는 책임감을 더 가지고 해야겠다는 생각이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이어 "현장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다.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해보겠다. 그리고 같이 촬영하는 선배님들에게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다른 분들한테나 저 또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감과 함께 동료와 선배 배우들에 대한 인사를 남겼다.

이번 영화에는 유승호 외에도 고아라, 곽도원, 조윤희 등이 출연한다. '조선 마술사'는 4개월 동안 용인, 남양주, 문경, 속초, 전남 화순 등지에서 로케이션과 세트 촬영을 진행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병호기자 solanin@

'국민부부' 유동근·전인화 웰메이드 둥지

유동근 전인화 부부가 이종석 오연서 등이 소속된 웰메이드 예당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웰메이드 예당 측은 "그동안 국민 배우로서 시청자를 감동시켜 온 유동근과 전인화가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두 사람은 KBS와 MBC 주말드라마에 출연해 총 76%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국민 배우 부부의 저력을 보여줬다.

전인화의 경우 MBC '전설의 마녀'에서 아픔을 지닌 재벌가 추지 자원관 역을 맡아 열연 중이다. 신화그룹과 거북 제과 사이에 얽힌 갈등을 직접하는 실마리를 제공하며 극의 몰입도를 높이고 있다.

유동근은 지난해 KBS1 '정도전'을 통해 연기 대상을 수상했고 KBS2 '가족끼리 왜 이래'에서는 부성애를 표현해 안방을 감동시켰다. 현재 휴식을 취하며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 /전효진기자 jeonhj@

자금, 당신 곁엔 누가 있나요?

담백하고 흡입력 있는 영화

에 있는 이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영화

다른 나라에서 이자벨 위페르 주연 | 마크 피투시 감독

2월 26일 대개봉!

"내 발이 운다…7일이여 빨리 오라"

K리그 클래식 D-4

전북vs성남 개막전 시작 열기 차두리·이동국·정대세 등 주목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이 7일 디펜딩 챔피언 전북 현대와 FA컵 우승팀 성남FC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9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올해 클래식에는 전북, 수원 삼성, FC서울, 포항 스틸러스, 제주 유나이티드, 울산 현대, 전남 드래곤즈, 부산 아이파크, 성남, 인천 유나이티드, 대전 시티즌, 광주FC까지 12개 팀이 격돌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팀당 33경기를 치른 뒤 중간 성적에 따라 상위리그 6개 팀(1~6위)과 하위리그 6개팀(7~12위 팀)을 나누는 스플릿 시스템을 가동해 팀당 5경기씩 더 치르는 방식으로 우승팀을 정한다.

클래식 최하위팀은 내년 시즌 챌린지(2부리그)로 곧장 강등되고, 11위 팀은 챌린지 플레이오프 승자와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 1부리그 잔류 여부를 결정한다.

우승 후보로는 지난해 우승팀 전북과 준우승을 차지한 수원을 비롯해 명문팀 서울, 포항, 울산 등을 꼽을 수 있다.

전북은 지난해 라이언킹 이동국을 비롯해 한교원·이승기·레오나르도 등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2위 수원과의 승점 차를 14점이나 벌리고 우승했다. 올해는 팀을 잠시 떠났던 '특급 도우미' 에닝요를 복귀시키고 검증된 공격수인 에두를 데려와 뒤판밤을 보강했다. 이 때문에 축구 전문가들은 전북을 우승후보 '0순위'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전북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팀으로는 울산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J리그 무대에서 지도력을 인정받은 젊은 사령탑 윤정환(42)에게 지휘봉을 맡긴 울산은 이번 시즌을 대비해 우즈베키스탄 대표팀의 패스 마스터 제파로프와 측면 공격수 김태환을 성남FC에서 데려와 전력을 보강했다.

수원은 지난해 득점왕 산토스와 정대세로 이뤄진 공격진에 지난해 전북에서 9골을 터트렸던 카이오를 영입했다. 또 스위스 1부리그 FC시온에서 뛰었던 공격수 레오를 임대로 데려와 공격진을 보강했다.

최근 2년간 용병 없이 팀을 꾸려왔던 포항은 용병 3인방 티아고·모리츠(이상 브라질)·라자르(세르비아)를 영입하며 재도약을 외치고 있다.

서울은 인천에서 뛰던 공격수 이석현을 영입했지만 에스쿠데로가 중국 장쑤 세인티로 이적하면서 공격진의 무게감이 떨어졌다.

K리그 클래식에서 주목할 선수는 올해를 끝으로 선수생활을 마무리하는 차두리(35·서울)다. 최근 2015 호주 아시안컵에서 물오른 기량을 뽐내며 한국의 준우승을 견인한 차두리는 말년에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리그 최다골, 최다 공격포인트 행진을 이어가는 이동국(36·전북)과 북한 대표팀의 스트라이커를 지낸 '인민 루니' 정대세(31·수원)도 빼놓을 수 없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차두리
정대세

호날두 5시즌 연속 30골

레알 마드리드는 무승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선두 레알 마드리드가 달아날 기회를 놓치며 2위 FC바르셀로나에 바짝 쫓기는 신세가 됐다.

레알 마드리드는 2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경기장에서 열린 2014-2015 프리메라리가 25라운드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선제골에도 비야레알과 1-1로 비겼다. 레알 마드리드(승점 61)는 선두를 지켰지만 바르셀로나(승점 59)와는 승점 2점 차다.

호날두는 30호 골을 쏴 5시즌 연속 리그 30골을 돌파하며 득점 부문 1위를 유지했다. 득점 2위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와는 3골 차로 벌렸다.

/김민준기자

양희영 세계랭킹 10위로 김효주 7위 한계단 상승

1일 태국 촌부리에서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혼다 타일랜드에서 우승한 양희영(26·사진)이 세계 랭킹 10위로 뛰어올랐다.

양희영은 2일 발표된 세계 랭킹에서 지난주 16위에서 10위로 6계단 상승했다. LPGA 투어 2015시즌 상금과 올해의 선수 부문 선두에 나선 양희영은 올해 혼다 타일랜드 우승, 호주여자오픈 준우승 등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8)가 여전히 1위를 지켰고 박인비(27·KB금융그룹), 스테이시 루이스(미국), 펑산산(중국) 순의 2~4위도 변함이 없었다.

미셸 위(26·나이키골프)가 5위에서 6위로 밀렸고 김효주(20·롯데)는 8위에서 7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김민준기자

5번타자 변신 이대호 "타순 안 중요해"

"소프트뱅크 우승 다시 한번"

시범경기 5타석 만에 시원한 홈런포를 가동한 '빅보이' 이대호(33·소프트뱅크 호크스)에 대해 일본 언론이 주목했다.

스포츠닛폰은 2일 "이대호가 시범경기 팀 1호 홈런을 쳤다"며 "지난해 시범경기에서는 45타석 만에 홈런을 쳤는데 올해는 5타석 만에 홈런을 기록했다"고 알렸다.

이대호는 1일 일본 후쿠오카 야후 오크돔에서 열린 라쿠텐 골든이글스와 홈경기에서 0-0으로 맞선 4회말 2사 2루 가라시마 와타루의 시속 131㎞짜리 몸쪽 직구를 잡아당겨 좌중간 담장을 넘어가는 투런 아치를 그렸다. 이날 소프트뱅크는 2-0으로 승리했다.

스포츠닛폰은 이날 이대호가 5번 타자로 나선 것에 더 관심을 보였다.

4회말 선두타자 아카시 겐지가 우익 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를 쳤지만 3번 우치카와 세이치가 좌익수 뜬공, 4번 마나키타 유키가 삼진으로 물러나 아카시는 2루에 묶여 있었다. 2사에 몰린 상황에서 이대호가 시원한 홈런포를 쏘아 올리며 소프트뱅크는 기回를 살렸다.

구도 기미야쓰 소프트뱅크 신임 감독이 구상한 '이대호 5번 활용'이 효과를 본 셈이다.

지난해 4번타자로 전 경기(144경기)에 나선 이대호는 올해 그 자리를 마나기타에게 내주고 5번으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이대호는 "4번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며 "타순이 변해도 내 역할은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팀의 일본 시리즈 우승은 내 생애 가장 기뻤던 일이었다"며 "다시 한 번 그 기분을 느끼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민준기자

휴가 마친 슈틸리케 감독 4일 귀국

2015 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의 준우승을 이끈 울리 슈틸리케(61·독일·사진) 축구대표팀 감독이 휴가를 끝내고 4일 귀국해 본격적인 3월 평가전 준비에 나선다.

대한축구협회는 2일 "스페인에서 휴가를 보낸 슈틸리케 감독이 4일 오후 귀국한다"며 "7일 K리그 클래식 경기를 관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시안컵 일정을 마친 슈틸리케 감독은 지난달 6일 자택이 있는 스페인 남부의 항만도시인 알메리아에서 휴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본격적으로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슈틸리케 감독은 지난 1월 아시안컵에서 대표팀을 이끌고 27년 만에 한국을 결승전까지 끌어올리면서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김민준기자

9호선 대체버스 정식운행 개시 출근시간 지하철 9호선 대체버스인 8663번 급행순환버스가 2일 정식운행을 시작했다. /연합뉴스

(동문회비)

"학사모 빌리려면 5만원 내라"

서울 사립대 졸업식서 회비 강제징수 논란

서울의 한 사립대 학부 동문회가 동문회비를 내지 않은 졸업생에게 학사모를 빌려주지 못하게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서울 지역 모 사립대 A학부와 학생들에 따르면 해당 학부 졸업생들은 지난달 10일 열린 졸업식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졸업식의 필수품인 학사모를 빌리려면 무조건 동문회에 가입하고 회비 5만원을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졸업 가운과 학사모는 학부(과) 차원에서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보증금을 받고 대여한다.

졸업식 당일 많은 졸업생이 이런 관행에 반발해 항의했지만 동문회 측은 회비를 내지 않으면 학사모도 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졸업생들은 학사모 없이 졸업사진을 찍을 수는 없어 결국 5만원을 낼 수밖에 없었다.

A학부는 4~5년째 동문회가 이 업무를 전담해 관행처럼 동문회비를 받고 학사모를 빌려줬지만 최근 한 졸업생이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이 내용이 알려졌다.

한 졸업생은 "고생하신 부모님께 학사모를 안 씌워 드릴 수 없어 빌리긴 했지만 권력남용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이런 일이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부끄럽다"고 말했다.

동문회는 졸업생들의 동문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동문회 측은 "반강제적으로 동문회비를 걷은 점은 인정한다"며 "자율적으로 내도록 하면 회비 납부율이 저조해 심지어 동문회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 동문회를 유지하려고 이런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현정기자 Jjh@metroseoul.co.kr

사시, 고대 '주춤주춤'

사법연수생 221명 입소 – 연대 이어 성대·한대에도 밀려

사법시험 절대 강자 고려대가 지난해 연세대에 이어 올해에는 성균관대와 한양대에도 밀렸다.

사법연수원은 2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연수원 대강당에서 46기 연수생 221명의 입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46기 연수생 수는 지난해 입소한 45기(298명)보다 77명 줄었다. 연수생들의 평균 연령은 30.9세로 지난해(29.72세)보다 1.18세 증가했으며 평균 연령이 30세를 넘은 것은 2004년 입소한 35기(30.16세) 이후 11년만에 처음이다. 여성 연수생 수는 71명으로 작년의 122명보다 줄었고 전체 연수생 대비 여성 비율도 작년의 40.93%에서 32.12%로 감소했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34명) ▲성균관대(21명) ▲한양대(20명) ▲고려대(19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 35명의 연수생을 배출한 고려대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숫자를 기록하며 5위로 추락했다. 더욱이 절대 우위를 보이던 고려대의 아성을 지난해 처음으로 누르고 2위에 오른 연세대와의 격차도 더욱 벌어졌다.

아울러 전체 연수생 가운데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23.98%로 작년(21.14%)보다 소폭 증가했다. 또 경찰로 일하다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김신호씨와 슈퍼모델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이진영씨 등 특이경력을 가진 연수생도 있었다.

한편 사법연수원은 국민들의 권리구제 의식이 강화되면서 민·형사소송과 행정소송, 가사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46기부터 공법소송과 가사소송 과목을 도입해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황재용기자 hsoul@

지방법규 일제정비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 시행 20년 만에 지방법규 8만7000여 건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2일 밝혔다.

행자부는 최근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을 3일 전국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정비 대상은 조례 6만3476건(지난해 말 기준)과 규칙 2만3687건 등이다.

아울러 행자부가 정비계획에서 개선을 요청한 지방법규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례·규칙 ▲상위법령 위반 조례·규칙 ▲법령 근거가 없는 규제 ▲유명무실화된 조례·규칙 ▲적용 대상이 없는 조례·규칙 등 5개 유형이다.

/황재용기자

나도 이제 대학생! 2일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15학년도 서울대학교 입학식을 마친 입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능기부로 어린이집 특별 활동 부담 줄인다

서울시는 구연동화, 체육,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로 활동할 재능기부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재능기부를 받는 특별 활동에 대한 비용은 부모가 별도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재능기부자에게는 서울시가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자원봉사 실적을 발급한다.

모집 분야는 음악, 영어, 미술, 무용, 국악, 예절, 종이접기, 구연동화 등 0~5세의 영유아와 함께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접수는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시는 지난해 '재능기부 활용 어린이집' 사업을 통해 총 75명의 재능기부자가 85곳의 어린이집에서 활동했고 약 1억2000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조현정기자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전보 ▲통상차관보 우태희 ◇실장급 승진 ▲통상교섭실장 김학도 ◇국장급 전보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정승일

■한국증권거래연합회

▲정책본부장 박향균 ▲회원사업본부 홍보팀 차장 김영숙 ▲기획관리팀 과장 진효검 ▲정책본부 정책통계팀 선임연구원 박미진

■데일리스포츠한국

데일리스포츠 한국 ▲사장 배성현(전 한국일보 사업본부장)

■유유제약

▲중앙연구소장 박해권

■메드라이프생명

임원 선임 ▲재무담당 전무 송건록 ▲상품담당 전무 정의천 ▲컨트롤러담당 상무보 이수원 ▲리스크매니지먼트담당 상무보 장우용

■산업연구원

전보 ▲산업통계분석센터 소장 모영석

■한화손해보험

부장 승격 ▲울산지역단 이제우 ▲강동지역단 이판현 ▲대전지역단 정상금 ▲기업영업2부 박재철 ▲중부GA영업부 차한용 ▲호남보상센터 김운수 ▲부산지역본부마케팅파트 김경곤 ▲강원지역본부마케팅파트 이약기 ▲호남지역본부마케팅파트 박윤수 ▲소비자보호파트 문수준 ▲가계금융파트 손두호 ▲자다업지원파트 안홍구 ▲일반업무기획파트 허준동 ▲경영관리파트 최진암 ▲인재파트 홍창기 ▲장기계약관리파트 황정연

■하쓰오일

<임원 승진>

◇부사장 ▲신현욱 HUC(잔사유고도화설비)본부장 ◇전무 ▲박주원 TREASURER(자금부문) ◇상무 ▲한주팔 안전환경부문 담당 ▲안중철 수급부문 담당 ◇상무보 ▲김호정 홍보팀장 ▲이두연 소비자관리팀장 ▲소권택 CEO실 팀장

■충앙대병원

◇진료처장 ▲병리과 김혜선 ▲영상의학과 박성빈 ◇실장 ▲홍보 송정수 ▲류축클리닉 정용훈

■한양대

◇서울캠퍼스 ▲교학부총장 김희율 ▲검학본부장 이수철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종규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최영한 ▲국제관광대학원장 조인호 ▲인학처장 모성근 ▲정보통신처장 자재학 ▲경영감사실장 정활범 ◇ERICA캠퍼스 ▲ERICA부총장 이재선 ▲공학기술대학원장 윤병식 ▲운림산업대학원장 박기동 ▲예술디자인대학원장 김경수 ▲교무처장 백동훈 ▲산학협력단장 겸 학술연구처장 이기영 ▲학술연구부처장 겸 현장실습지원센터장 좌동훈

부고

▲김현태씨 별세, 윤경은(현대증권 대표이사)씨 부인상, 유보현(군 복무중)씨 모친상 = 1일 오후 9시 10분, 발인 4일 오전 5시,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 02-3010-2295

▲이종천씨 별세, 이두현(대원병원장)·두철(대형병원 검사실장) 혜영(신인초교 교사) 경희(금정초교 교사)씨 부친상, 성건보(GH미디끝 사장)씨 장인상, 최정희(백석예술대 교수)씨 시부상 = 1일 김진흥한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3월 3일 041-350-4444

▲신경례씨 별세, 신주선(KSF선박금융 대표이사) 영선 기인(자인) 미선(성균관대 석경이사) 경희(모리이에듀케이션 대표)씨 모친상, 강원철(할렌한교회 담임목사)·전병주(크레듀 과장)씨 장모상, 최유경(국제노무법인)씨 시모상 = 28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본향실 30호, 발인 3월 3일 오전 6시 02-3010-2000

▲고시복씨 별세, 고원호(한국은행 외환서장)씨 시부상, 원준(하나대투증권 부장)씨 부친상 = 1일 오후 3시, 계주 성산국민장례식장, 발인 4일 오전 11시 064-782-4234

▲박병홍씨 별세, 박율선(경신전기(주) 부사장) 국현(서울교육연수원 부장) 주순·주애씨 부친상 = 2일 오전 6시 35분, 반포동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4일 오전 7시, 장지 국립 이천 호국원, 02-2258-5940

용산기지 오염조사 본격화

서울시, 기초조사 끝내고 시료 채취 준비 - 정화비용 환수 소송도 추진

서울시가 용산 미군기지의 유류 오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지 내부 기초조사를 끝내고 조만간 지하수 시료 채취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시 도시안전본부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9일 처음으로 기지 내부에 들어갔고 24일 지하수 관정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쳤다.

시는 그동안 32개 관정의 위치와 구경, 깊이와 지하수위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8개 관정의 지하수위가 45m 이상인 점을 확인, 시료 채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시는 기초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달에 열릴 제6차 한미공동실무위원회에서 시료 채취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료 채취는 지하수위가 어느 정도 확보된 관정에서 펌프질을 통해 오랫동안 고인 물을 걷어내고 새로 뽀얀 물을 떠서 이뤄진다. 시는 이 작업을 통해 미군 측이 주장한 대로 유류오염에 대한 자체 정화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2012년부터 2년간 들어간 정화비용 12억9000만원을 소송을 통해 받아냈다. 또 지난해 총 1660t의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을 환수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소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6차 회의가 지난달부터 지연됐지만 조사가 차질을 빚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다. 조사를 추진하면서 기지 외부의 오염 지하수 정화작업과 확산 감시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지 주변에서 기름 유출이 발견된 것은 2001년부터다. 그동안 녹사평 일대와 남영동 캠프킴 주변 등 총 1만2235㎡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캠프킴 옆에서는 기름오염을 나타내는 석유계총탄화수소가 아직도 고농도로 검출되고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평화의 소녀상 과 소녀 2일 충남 천안시 목천고등학교에서 열린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에서 소녀상 밑그림을 그린 이 학교 2학년 김건지(17)양이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 직원 감금 혐의 야 의원 "본질 덮은 정치적 기소" 비판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 김모씨를 감금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감금)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강기정(51)·이종걸(58)·문병호(56)·김현(50)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들은 "국정원 직원을 감금한 게 아니라 국정원의 불법 선거운동의 실체를 밝혀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 사건은 거짓과 진실이 바뀐 전형적 사례"라며 "기소독점권을 활용해 몇몇 국회의원을 기소하고 본질은 덮은 검찰은 '정치검찰'이라 부르고 싶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 역시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국정원 직원)는 기소하지 않고 정의를 세우려는 사람은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인 김씨와 그의 부모·오빠 등 가족, 선관위·국정원 직원 등을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변호인 측 증인으로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컴퓨터 전문가인 한양대 부교수 김모씨 등이 채택됐다.

한편 강 의원 등은 2012년 12월 11일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이 인터넷에 야당을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접하고 서울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 있는 국정원 직원 김씨의 집 앞에 모여 김씨를 3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정원기자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전국 대다수의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맞이한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사대부설초등학교 앞에서 경찰과 학교 관계자들이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교통감시장치 담합 업체 국가에 67억원 배상하라"

과속과 신호위반 등을 기록하는 무인교통감시장치의 입찰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국가에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이 엘에스산전 등 무인교통감시장치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엘에스산전 ▲비츠로시스 ▲건아정보기술 ▲토페스 ▲르네코 ▲하이테콤시스템 등 6개 업체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무인교통감시장치 구매를 의뢰받아 입찰에 참가했다. 이들은 각 업체 사무실과 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에서 모여 정보를 나누고 입찰 공고가 나면 사전에 모임을 열어 각자 원하는 낙찰 희망지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내부 협의를 끝냈다.

입찰이 시작되면 해당 지역의 낙찰 예정자로 약속된 업체는 조달청이 책정한 기초금액의 97~98% 정도 가격을 써내고 나머지 업체들은 이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 미리 지정한 업체가 낙찰되도록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들이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와 입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결정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들은 함께 연대해 원고에게 67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지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을 적발해 총 33억원의 과징금을 업체들에 부과한 바 있다.

/황재용기자

"조합장 선거 관련 피싱 발생 주의"

경찰, 3단계 단속체제 가동…불법 선거 단속

경찰청은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관련 피싱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범죄를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표번호를 발신번호로 해 "선거 관련해서 당신이 한 일을 알고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히 넘어가고자 합니다. 서로 원만하는 의미에서 아래 계좌로 100만원만 입금하시면 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냈다.

경찰은 해당 계좌를 지급 정지하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선관위·경찰·검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됐다. 3단계 단속 체제를 가동, 수사·정보·지역경찰 등 전 경찰력을 동원해 불법 선거 운동 단속에 나섰다.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들이 후보자 등 문회 홈페이지·지역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순찰도 벌이고 있다.

2월 26일 현재 경찰은 선거사범 523명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중 1명을 구속,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선거 범죄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이 57%로 가장 많고 사전 선거 운동(24%), 허위사실 공표(12%) 등의 순이다.

/조현정기자

프로들의 자산관리
신한금융투자